

外部報告를 위한 直接原價計算의 問題點

李 正 浩

目 次	
I.	序 言
II.	直接原價計算과 全部原價計算
1.	直接原價計算의 特徵
2.	兩原價計算上의 損益比較
III.	直接原價計算論爭
1.	初期段階의 論爭
2.	「홍그렌」 및 「소터」의 未來原價回避論
3.	「페스」 및 「페라라」의 附加價值論
IV.	直接原價計算의 中心課題
1.	利益測定上의 問題點
2.	資産測定上의 問題點
V.	結 言

I. 序 言

周知하는 바와 같이 商業簿記 또는 商業會計에 관한 最初의 文獻은 中世 「이탈리아」의 商業都市를 中心으로 發展되었으나 原價計算 또는 工業會計에 관한 組織的인 研究는 産業革命의 洗禮를 받고 난 19世紀末 英國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리틀턴」(A. C. Littleton)의 考證的 研究에 依하면⁽¹⁾ 原價問題에 관한 最古의 文獻으로서 「페이양」(Payan)에 의한 『製造業의 簿記理論』⁽²⁾과 「크론헬름」(Cronhelm)의 『單式에 의한 複式記帳』⁽³⁾을 들고 있으나 이것은 다 같이 商人簿記를 製造業에 適用한데 불과하고 製造工程에 있어서 數量的 記錄과 貨幣價值的 記錄의 直接的인 結合을 缺如하고 있어 今日에 와서는 다만 史實的 價値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 後 19世紀가 끝나기 4分の 1이 되는 時期에 英國을 中心으로 「배터즈비」(T. Battersby), 「가크」 및 「펠스」(E. Garcke and J. M. Fells), 「노튼」(G. P. Norton)등에 의해서 여러 著

(1)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1933, p. 323.

(2) Payan, *Essai sur la tenue des livres d'un manufacturier*, Paris, 1817.

(3) Cronhelm, *Double Entry by Single*, London, 1818.

書⁽⁴⁾가 속속 出版되어 오늘날의 一般 原價計算의 基礎를 構築하게 되었다. 그러나 當時의 工場會計實務에서는 製品原價를 原料(材料費) 및 工賃(勞務費)의 2種의 直接費만으로 構成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工場經費(間接費)는 모두 損益計定에 對替하는 것이 普通이었다. 따라서 企業의 總利益은 賣價와 原料 및 工賃의 合計額과의 差額으로서 認識되었다.⁽⁵⁾

그러나 産業革命(1770—1830)의 결과 前世紀末에서부터 시작한 經濟社會의 急速한 發展은 大規模의인 工場制工業의 成立을 促進시켰으며 工業經營에 있어서의 生産過程은 複雜多岐하게 되어 固定設備가 차지하는 比重은 漸次 增大하게 되었다. 固定設備의 增大는 必然的으로 그 評價의 重要性을 提起하였으며 따라서 間接費의 製品에의 配分問題가 重要한 課題로 登場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처치」(A. H. Church)의 『經費의 適正配分論』⁽⁶⁾은 近代의 工業會計制度 確立에 寄與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처치」는 『經費의 適正配分論』을 통하여 19世紀型的 工場會計와 20世紀型的 그것을 判가름하는 分岐線을 이루는 間接費處理問題에 있어서 豫定率에 의한 間接費配賦와 補充率에 의한 修正에 관한 理論을 展開하여 工業經營에 있어서 間接費의 意義와 重要性을 認識시키는 데 貢獻하였다. 그는 또한 正常率에 의한 間接費配賦를 함으로써 相異한 期間의 各種業務에 대한 原價比較가 可能할 뿐만 아니라 補充率의 正常率에 대한 比率는 原價能率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明確히 함으로써 오늘날 原價計算의 極致를 이루는 標準原價計算의 先驅者의 業績을 남기었다.

말할 것도 없이 1920年代에 나타난 標準原價計算은 「테일러」(F. W. Taylor)에 의해서 主張된 科學的管理法의 影響을 받아 産業合理化運動의 一環으로 나타난 原價管理用具로서 出現한 것이다. 標準原價計算이 나타나기 以前의 一般的 原價計算은 原價諸要素 즉 材料費, 勞務費, 製造間接費의 費用支出이 現實的으로 把握 確定된 뒤에 製品原價를 決定하는

(4) T. Battersby, *The Perfect Double Entry Bookkeeping and the Perfect Prime Cost and Profit Denominator, for Iron and Brass Founders, Mechanists, Engineers, Ship Builders, Manufacturers, etc.*, 1878.

E. Garcke and J. M. Fells, *Factory Accounts, Their Principles and Practice*, 1887.

G. P. Norton, *Textile Manufacturer's Book-keeping*, 1889.

(5) 原價計算發展의 初期段階에서 나타난 이 直接原價의 思考는 오늘날 直接原價計算에서 말하는 直接原價와 그 內容을 달리하고 있다. 즉 오늘날 直接原價計算에서 意味하는 直接原價는 直接原價 間接原價라고 하는 意味의 直接原價와는 本質的으로 相異한 概念이다. 오늘날 말하는 直接原價의 特徵의인 思考는 生産量의 變動에 依하여 變動하는 費用群과 그 變動의 影響을 받지 않는 固定性費用群과 區別되는 데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今日的 直接原價의 內容은 生産量과 더불어 變動하는 直接原價 外에 하나의 例를 들면 製造間接費중 變動製造間接費를 費用 內容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意味의 直接原價計算은 初期段階에서 말하는 直接原價의 計算으로 逆轉되는 것은 아니다.

(6) A. H. Church, *The Proper Distribution of Expense Burden*, 1908.

實際의 原價計算에 基礎를 두고 있기 때문에 原價計算方法으로서는 正確한 것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이것은 過去의 事實에 基礎를 둔 歷史的 原價(historical cost)의 領域을 脫皮할 수는 없다. 이것이 確定計算의 한 特徵인 同時에 實際原價計算이 가지는 가장 큰 短點이다.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되어 企業財産에서 固定資産이 차지하는 比重이 커짐에 따라 週期的으로 來襲하는 景氣變動에서 必然的으로 나타나게 되는 不動費의 處理問題와 原價諸要素에 대한 原價能率의 管理問題는 比例的으로 重大하게 되었다. 從來의 實際原價가 歷史的으로 事後에 處理된다고 하는 事後原價計算에 反旗를 들고 原價는 原價가 發生되기 以前에 그에 대한 標準을⁽⁷⁾ 設定하고 이 標準에 따라 原價를 管理統制하여야 한다는 것이 「테일러」(F. W. Taylor)의 後繼者인 「에머슨」(H. Emerson) 「간트」(H. L. Gant) 등 技術家를 中心으로 最初로 擡頭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在來의 原價會計를 回顧的 原價會計(retrospective cost accounting) 또는 더욱 苛酷하게 檢屍的 原價會計(post-mortem cost accounting)란 惡名을 붙이고 이와 같은 會計는 企業의 未來活動에 貢獻을 하지 못한다고 抗議하는 同時에 특히 「에머슨」(H. Emerson)은 能率技師에 의해서 設定된⁽⁸⁾ 標準原價는 實際原價와의 比較에 의해서 非能率로부터 생기는 損失을 暴露하고 積極的으로 不必要한 要素를 排除하여 能率의 增進을 圖謀하여야 한다는 것을 力說함으로써 오늘날 標準原價計算의 先驅者가 된 것이다.

標準原價計算을 嚆矢로 하는 未來指向的인 會計方法은 급기야 管理會計(management accounting 또는 managerial accounting)란 從來의 財務會計(financial accounting)에 대한 새로운 會計領域을 形成하였다. 이것은 新時代에 相應하는 企業의 未來活動에 대한 數字的인 綜合計劃을 새로운 會計學의 標識로 하여 未來에의 前進를 開始하여 積極的으로 經營統制를 援助하는 會計學의 確立을 보게 하였다. 이 管理會計學은 標準原價計算은 물론 豫算統制 損益分岐點分析 販賣分析 등 經營計劃 및 統制上의 新用具로서 構成되어 그의 價値는 加速度的으로 飛躍하여 오늘날 會計學의 最高形式을 이루게 되었다.⁽⁹⁾

(7) H. Emerson, *Efficiency as a Basis for Operations and Wages*, 1914.

이 곳에서 「에머슨」은 最初로 標準原價란 用語를 使用하였다.

(8) 「에머슨」은 標準原價計算의 成功的인 實施는 能率技師에 의한 標準의 設定을 基礎로 하여 會計士와의 協調下에서 이루어진다고 提案하였다.

(9) 「실링로」(Gordon Shillinglaw)는 最近의 그의 著書(*Cost Accounting; Analysis and Control*, 1961)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原價會計란 用語는 잘못 認識되고 있는 것 같다. 그 理由는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原價를 위한 會計 그 自體에 局限되는 問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內部管理會計(internal managerial accounting)라고 하는 것이 보다 正確한 表現이다. 이것은 企業 各部門의 經營活動을 管理 및 評價하기 위해서 企業內部에서 마련된 財務記錄 豫測

이와 같은 原價計算의 進化過程은 間接費處理問題로서 歸結시킬 수 있다. 「처치」를 先頭로 하여 나타난 間接費의 製品原價配賦問題는 「화이트모어」(J. Whitmore)의 修正을 거쳐 「에머슨」(H. Emerson)에 가서는 標準原價로 飛火 「해리슨」(G. C. Harrison)에 가서 標準原價論을 成立하게 한 것이 그것이다.

標準原價計算에 이르기까지의 이와 같은 過程은 1930年代까지 繼續되었고 1930年頃부터 1950年頃에 이르는 이르는 約 20年間은 比較的 小康狀態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50年 初부터 會計學界는 또 다시 間接費問題로 인한 論爭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直接原價計算問題이다.

直接原價計算(direct costing)⁽¹⁰⁾의 發端은 1930年代 美國經濟社會를 背景으로 하여 過渡的期間⁽¹¹⁾을 거쳐 나타난 「해리스」(J. N. Harris)의 論文 「지난 달 우리는 얼마나 벌어들였나?」(What Did We Earn Last Month?)를 起點으로 하여 나타났다.⁽¹²⁾

報告 및 財務分析과 關聯이 있다. 이것은 財務會計(financial accounting) 또는 企業會計(enterprise accounting)에 對한 말로서 이 곳에서의 中心的 問題點은 企業의 各部分的 取扱을 하는 것이 아니고 全體的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이것은 經營에 依해 利用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外部投資家에 依해서 利用된다.』

- (10) 直接原價計算에 대한 定義는 「네이커크」(W. W. Neikirk)가 使用한 것이 종종 引用된다. 『直接原價計算은 製造原價를 固定費와 變動費로 分離하는 方法이라고 定義하여야 한다. 素價(prime costs)에 變動製造間接費만을 包含한 것이 在庫資產과 賣出原價를 評價하기 위해서 使用된다. 殘餘의 製造經費는 今期の 損益에 賦課된다. 그러나 強調해야 할 點은 直接原價計算은 第一義的으로는 費用의 分離이며 副次的으로만이 在庫資產評價方法이던 것이다. 이 方法에 의하면 直接原價計算은 損益計算書 및 補助的業務報告書에 미치는 影響에 모든 注意를 기울일 수 있다.』(W. W. Neikirk, "How Direct Costing Can Work for Management," N.A.C.A. Bulletin, January 1951, p. 525)
- (11) 「테일러」(P. C. Taylor)는 直接原價計算에 이르기까지의 過渡的形態로서 正常配賦計算과 勵力性豫算을 들고 있다. (P. C. Taylor, "What Can We Expect of Direct Costing as a Management Tool?" N.A.C.A. Bulletin, July 1953, pp. 1532-5).
- (12) 直接原價計算에 대한 最初의 論文은 1936년에 發表된 「해리스」(J. N. Harris)의 "What Did We Earn Last Month?"이나 N.A.C.A.에서 調査報告한 「直接原價計算」(Direct Costing)에 의하면 이 論文이 發表되기 그 年前부터 直接原價計算을 實施하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1908년에 某會社의 豫算部長은 原價計算組織을 立案하여 그것에 基礎하여 價格政策의 資料로서 固定費와 變動費를 各各 集計하였다는 것을 報告하고 있다. 그 後에도 어떤 被調査會社에서는 直接原價計算을 위해서 社內에 研究會議을 가졌으나 結局 在庫資產價額을 直接原價에 의하지 않았다는 事實도 있으며 또한 다른 會社는 1922년에 設立되어 現在에 이르기까지 直接原價計算을 採用하고 있고 다른 會社는 1932年 즉 「해리스」論文 發表 4年前에 直接原價計算을 採用하였다고 報告하고 있다. ("Direct Costing", N.A.C.A. Research Series No. 23, p. 1081). 1936年 1月 15日字 N.A.C.A. Bulletin에 發表한 "What Did We Earn Last Month?"는 그 一部가 對話形式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核心的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山邊六郎, 『原價計算論』, 1961年, pp. 409-436). 즉 「스톤」(Stone)社長(假想的人物)은 지난 달에 비해 今月이 100,000弗 以上の 賣出額을 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反對로 純利益은 20,000弗程度 減少한 것에 대해서 從來의 會計制度를 批判하고 會社利益의 大小는 賣出額의 增減과 步調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主張한다. 이에 대해서 經理部長「로우」(Rowe) 「해리스」自身을 이에 비유하였음)은 全部原價計算制度下에서는 生産量의 變動에 따라서 製

이 直接原價計算은 從來의 全部原價計算(full cost accounting, total cost accounting, absorption cost accounting)이 近代의 經營의 要請에 應할 수가 없다는 데서 出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今世紀에 들어와서 深刻해진 恐慌, 또는 季節의 事情에서 生産賣出額은 不斷히 變動한다. 이 경우에 生産賣出額이 적은 경우에는 製造間接費는 固定費의 要素가 大部分이기 때문에 製品 1單位當의 製造間接費는 높게 나타나 製品單位原價도 높아진다. 이에 反해서 生産賣出額이 많은 경우에는 製品單位原價는 낮은 價格으로 評價되게 된다. 이와같은 事情은 企業의 價格政策을 樹立하는데 不便한 뿐 아니라 當時 使用되고 있던 實際原價計算에 依해서는 實際原價가 判明되고 製品原價가 決定될 때까지는 많은 時日을 要하기 때문에 原價 生産量 收益 등의 計劃 및 其他 經營上의 手段으로서 原價를 利用하기에는 不便한 데서 나타난 것이다.

最初 管理目的으로 나타난 이 直接原價計算은 오늘날 原價·產出量·收益關係(cost-volume-profit relationship)를 通하여 『經營計劃에 內包된 諸問題를 調査하는 技術로서 有用하게 使用되고 있으며 이 管理用具는 戰略的計劃 및 政策樹立을 위한 執行的責任을 지고 있는 者들에게 利用되고 있다.』⁽¹³⁾

이와 같은 直接原價計算이 오늘날에 와서는 管理的 領域을 넘어 社會的制度로서의 外部報告目的으로도 利用될 것이 一部에서 要請되고 있다. 外部報告로서의 直接原價計算의 妥當性 如何가 本稿의 主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詳細한 論議는 後述하겠거니와 이것을 制度的原價計算으로 認定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아직 學界 實務界의 贊反이 交叉되고 있어 現段階로서 斷定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經營計算技術로서 가지는 意義는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直接原價計算이 事後의原價計算뿐만 아니라 標準原價計算이란 事前原價計算과 結付되어 直接標準原價計算의 實際的應用으로 發展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이 經營管理上 가지는 意義는 더욱 重視할 必要가 있다.

品 1單位의 製造間接費에 顯著한 變化가 생기기 때문에 賣出額과 利益은 반드시 步調를 맞춰나가지 못하는 從來의 會計制度의 矛盾을 認定하고 賣出額과 利益은 直接的 關係를 가질 수 있도록 一般의 會計實務는 改正을 必要로 한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로우」(Rowe)는 利益과 賣出額의 本來의 關係(proper relationship between profit and sales)를 提供하는 會計方法으로서 直接製造原價(普通은 變動費)만을 在庫資產에 包含시키고 固定製造原價는 모두 製品原價에서 除外하는 會計制度를 展開하고 있다. 이와 같은 方法에 의해서 「로우」(Rowe)는 純利益은 恒常 賣出額과 더불어 變動하고 또한 傳統의原價計算의 缺點인 製造間接費의 配賦過不足이란 事態를 除去할 수 있다는 것을 例證하고 있다.

이와 같은 原價計算法을 「해리스」는 直接原價計算(direct costing)이라 命名하고 이 制度가 갖는 若干의 缺點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直接原價計算의 長點은 短點을 充分히 補償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結論을 내리고 있다.

(13) N.A.A. Research Series No. 17(N.A.A. Research Bulletin Vol. 31).

II. 直接原價計算과 全部原價計算

1. 直接原價計算의 特徵

直接原價計算이 出現하기 以前의 原價計算은 全部原價計算(total costing) 또는 吸收原價計算(absorption costing)⁽¹⁴⁾에 依存하였다. 이 全部原價計算에서 給付單位當原價의 算定은 우선 原價諸要素를 材料費, 勞務費, 經費로 區分하고 이들 原價諸要素를 製造直接費와 製造間接費로서 直接費는 물론 間接費도 工程別 또는 製品別로 配賦하여 給付生産에 動員된 모든 原價要素가 原價를 構成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直接原價計算은 上述한 全部原價計算과는 달리 原價要素를 直接材料費 直接勞務費 및 變動間接費로 構成된 變動費(variable costs)와 生産量의 增加와는 하등의 關係없이 發生하는 固定間接費(fixed costs)로 二分하고 製品價로서는 變動費만을 取扱하여 固定間接費는 製品으로부터 除外하여 每期の 損費 즉 期間費用(period costs)으로 直接 損益計定에 對替하여 收益에 賦課시킨다. 따라서 이 方法에 의하면 賣出原價나 在庫資產價値의 表示에 있어서도 變動費만으로 評價하게 되고 在庫資產중에는 製造販賣能力(capacity)을 準備하기 위한 費用, 다시 말하면 生産設備의 費用(家賃, 地代, 固定資產의 減價償却費, 租稅, 火災保險料등), 基礎的인 經營組織을 維持하는 費用(工場에 있어서 幹部의 給料등) 및 經營者의 意見決定에 따라 決定되는 費用(廣告費 또는 試驗研究費등)과 같은 固定間接費는 이에 包含되지 않는다.⁽¹⁵⁾

(14) 吸收原價計算에 대한 定義로서 「콜러」(Kohler)는 “the assignment of all fixed and variable costs to goods or services produced; an antonym of direct costing”이라고 하고 있고 「켈러」(I. W. Keller)는 吸收原價計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The cost systems of most companies provide for the inclusion of all factory expense in inventory values at either actual or standard rates. This procedure is known as absorption costing. . . . All expenses of service operations are allocated to productive operations and the total of the incurred and allocated expense of each productive operation is related to the units produced, or other measure of activity, to determine an expense rate for each operation.”

(15) 이와같이 直接原價計算을 解釋할 때 이 方法은 直接費와 間接費를 區分하는 方法이라기 보다는 本質的으로 變動費와 固定費로 區分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直接原價計算」(direct costing)이란 用語보다 「變動原價計算」(variable costing)이란 用語를 使用하는 것이 보다 妥當할 것이다. 이와 類似한 用語로서 英國에서 使用되는 「限界原價計算」(marginal costing)이란 用語가 있으나 이것은 「微視經濟分析」(microeconomic analysis)에서 使用하는 「限界費用」(marginal cost)이란 特殊한 意味를 가지고 있어 不適當하다. 또한 이와 類似한 것으로 獨逸의 「限界原價計算」(Grenzkostenrechnung)이란 것이 있으나 이것도 本質的으로는 美國의 直接原價計算과 相異한 點이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變動原價計算」이란 用語를 使用해야 할 것이나 傳統的으로 使用하던 「直接原價計算」을 그대로 使用하기로 한다. [C. E. Johnson, “Inventory Valuation—The Accountant’s Achilles Heel,” *The Accounting Review*, Vol. 29, January 1954, p. 18 및 J. M. Fremgen, “The Direct Costing Controversy—An Identification of Issues,” *The Accounting Review*, Vol. 39, January 1964, p. 44 參照.]

이와 같이 全部原價計算과 直接原價計算을 比較하여 볼 때 直接原價計算은 傳統的인 全部原價計算에 비하여 다음의 諸點에서 相違하다. 이 相違點은 한편으로는 直接原價計算의 價値가 認定되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論爭의 餘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直接原價計算論者が 主張하는 그의 特徵을 本稿의 目的에 따라 要約 分類하면 다음 세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¹⁶⁾

1. 原價의 分類方法
2. 原價가 收益에 賦課되는 順序
3. 在庫資產의 評價.

첫째 原價의 分類方法에서의 相違點은 이것은 從來의 全部原價計算과는 달리 分析 및 管理目的에 相應할 수 있도록 製造原價를 包含한 販賣費 管理費등 모든 原價를 操業度(volume)와 比例하여 變動하는 變動費와 一定 操業의 範圍內에서는 比較的 固定되어있는 固定費 즉 期間原價로 區分하여 이들 固定費와 變動費가 各各의 計定上에 記入된다.

둘째 原價의 收益賦課順序上的 相違點을 보면 傳統的 全部原價計算에서 採用되고있던 方法은 原價를 基本的으로 製造原價와 其他의 모든 原價로 區分하여 損益計算書에서는 우선 賣出額에서 賣出製品原價를 差減하여 賣出總利益을 算出하고 다음에 其他의 諸原價 즉 管理費 販賣費 및 財務費를 差減하는 形式으로 하여 純利益을 算出하였다. 그러나 直接原價計算에서는 分析目的을 위한 意味있는 損益計算書를 算出하기 위해서 素價 뿐만 아니라 變動間接費를 包含한 變動費를 固定間接費에 우선하여 收益에 賦課한다. 다시 말하면 直接原價計算에서의 基本的인 原價區分은 變動費와 固定費이며 損益計算書에서는 우선 賣出額에서 操業의 增減에 따라서 變動하는 變動費(製造費는 물론 管理費 販賣費의 一部 또는 全部가 包含될 수도 있다)를 差減하여 限界利益(marginal income)을 求하고 다음에 이 限界利益에서 固定費를 差減하여 純利益을 求한다.

兩者の 損益計算書에 나타난 形式의 差異를 報告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損 益 計 算 書(全部原價計算)

	金 額	%
純 賣 出 額	₩200,000	100%

(16) 直接原價計算의 特徵에 대해선 아직 學者間에 統一된 見解를 찾을 수 없다. Robert I. Dickey 編 *Cost Handbook* (9.50)에서는 다음과 같이 特徵지우고 있다.

- ① Method of recording and reporting.
- ② Separation of costs into fixed and variable elements.
- ③ Variable costs applied to product.
- ④ Fixed cost written off as period cost.

差減：賣出原價		<u>140,000</u>	<u>70</u>
總利益		60,000	30%
差減：一般管理費	₩8,000		
販賣費	<u>20,000</u>	<u>28,000</u>	<u>14</u>
純利益		<u>₩32,000</u>	<u>16%</u>

損益計算書(直接原價計算)

		金額	%
純賣出額		₩200,000	100%
差減 變動費：			
素價	₩90,000		
變動間接費	<u>20,000</u>	<u>110,000</u>	<u>55</u>
差減：製造限界利益		₩90,000	45%
販賣費	₩12,000		
一般管理費	<u>2,000</u>	<u>14,000</u>	<u>7</u>
限界利益		₩76,000	38%
差減 固定費：			
製造間接費	₩30,000		
販賣費	8,000		
一般管理費	<u>6,000</u>	<u>44,000</u>	<u>22</u>
純利益		<u>₩32,000</u>	<u>16%</u>

셋째의 特徵으로서 在庫資産評價問題이다. 從來의 全部原價計算에서는 固定製造費는 製品原價에 配賦되어 賣出原價는 물론 在庫資産의 一部를 構成하였다. 그러나 直接原價計算에서는 利益決定目的을 위해서 固定製造費를 期間費用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이것을 期間原價로서 直接 損益計定에 借記하여 製品原價로서 在庫資産價에 包含시키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固定製造間接費는 期間原價로서 直接 收益에 賦課되어 製造原價로서 在庫資産價格을 構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處理方法의 相違가 兩原價計算制度에서 期間純利益을 다르게 하는 原因이 된다.

直接原價計算의 批判도 이와같은 直接原價計算이 갖는 特殊性 즉 固定費・變動費分類의 可能性, 限界利益概念, 다시 固定費를 期間原價로 하고 變動費를 製品原價로 하는 妥當性與否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第3의 論爭點에 注意를 集中하여 考慮해 보려한다. 그 理由는 이것이 直接原價計算의 가장 重要한 論爭點으로서 期間損益計算에 나타난 外部報告利益이 傳統的인 全部原價計算에 의한 것과 相違하며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直接原價計算이 一般적으로 認定되는 社會制度로서의 妥當性에 대한 궁극적인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2. 兩原價計算上の 損益比較

直接原價計算에서 製品의 期末在庫額이 期首在庫額과 다른 경우, 바꾸어 말하면 1 期間에 있어서의 賣出額과 生産額이 一致하지 않는 한 純利益에 있어서 全部原價計算에 의한 경우와 相異하게 나타난다 함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 理由는 傳統的인 全部原價計算에서는 製造上の 固定費가 在庫資産에 包含되어 移越되는데 반해서 直接原價計算에서는 固定費가 期間費用(period costs)으로서 收益에 對應되고 變動費만으로 構成된 在庫資産이 移越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보는 表에 의하여 直接原價計算에 의한 期間利益이 傳統的인 全部原價計算에 의한 그것과 어떻게 相異한가 하는 것을 具體的인 計算例에 따라 兩者를 比較·對照하면 더욱 明白해질 수 있다. (17)

다음 表는 同一한 經營資料에 立脚한 製造 및 販賣量이 다른 4 期の 損益計算書를 直接 및 全部原價計算의 形式으로 表示한 것이다.

	第 1 年度		第 2 年度		第 3 年度		第 4 年度	
經營資料								
販賣數量	2,500		2,100		2,100		2,100	
生産數量	2,500		2,500		2,000		1,800	
期末在庫數量	0		400		300		0	
製造原價：								
直接費 製品單位當 ₩60								
期間費 ₩200,000 (製品單位當 ₩100)								
販賣費 및 管理費(年間) ₩260,000								
損 益 計 算 書(全部原價計算에 의함)								
	第 1 年度		第 2 年度		第 3 年度		第 4 年度	
賣出額	₩750,000		₩630,000		₩630,000		₩630,000	
賣出原價(標準原價에 의함)								
直接費(單位當 ₩60)	₩150,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期間費(單位當 ₩100)	250,000	400,000	210,000	336,000	210,000	336,000	210,000	336,000
賣出總利益	₩350,000		₩294,000		₩294,000		₩294,000	
販賣費 및 管理費	260,000		260,000		260,000		260,000	
純 利 益	₩90,000		₩34,000		₩34,000		₩34,000	
操業度差異								
配 賦 額 ⁽¹⁾	₩250,000	₩250,000	₩200,000	₩200,000	₩200,000	₩180,000	₩180,000	₩180,000
期 間 費	200,000	50,000	200,000	50,000	200,000	0	200,000	₩20,000
稅差減前利益	₩140,000		84,000		₩34,000		₩14,000	

(1) 標準配賦率 ₩100 (正常生産量 2,000 單位에 立脚하여 計算함)에 實際生産數量을 乘함.
※表는 不利差異.

(17) Louis H. Jordan, "A Discussion of the Usefulness and Theory of Direct Costing," N.A.A. Bulletin, March 1962, p. 54.

損 益 計 算 書(直接原價計算에 의함)				
	第 1 年 度	第 2 年 度	第 3 年 度	第 4 年 度
賣 出 額	₩750,000	₩630,000	₩630,000	₩630,000
賣出原價(標準原價에 의함)				
直接費(單位當 ₩60)	150,000	126,000	126,000	126,000
限界利益	₩600,000	₩504,000	₩504,000	504,000
其他의 原價:				
期間製造費	₩200,000	₩200,000	₩200,000	₩200,000
販賣 및 管理費	260,000	460,000	260,000	460,000
稅差減前利益	₩140,000	₩44,000	₩44,000	₩44,000

위 表는 동일한 經營資料에 의해서 作成된 損益計算書를 傳統的인 全部原價計算에 의한 稅差減前의 利益을 直接原價計算에 의한 그것과 比較하기 위해서 作成된 것이다. 따라서 이 表는 各各의 方法에서 利益이 어떠한 原因에 의해서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證明해 주는 좋은 資料가 될 것이다.

第 1 年 度에서는 製品 2,500 個가 生産되고 이것이 全部 販賣된 경우의 利益을 表示한 것으로서 이곳에서 나타난 稅差減前의 利益은 全部原價計算의 경우에 있어서나 直接原價計算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나 同一하게 나타나 있다. 그것은 全部 原價計算에서는 正常生産量 2,000 個보다 많은 2,500 個를 製造하였으므로 50,000 원(500 個×100 원)의 有利操業度差異가 나타났으나 이것은 製品에 대해서 500 個의 超過配賦額이 되어 期末在庫資産이 零 製品은 全部 賣出原價로서 費用化되어 서로 相殺되어 利益數值에는 影響이 없다.

第 2 年 度에는 生産數量이 2,500 個 販賣數量이 2,100 個이며 나머지 400 個가 期末在庫商品으로서 次期에 移越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全部原價計算에서는 第 1 年 度와 같이 有利操業度差異가 생긴다. 그러나 利益은 直接原價計算에 의한 경우보다 40,000 원 크게 나타난다. 그 理由는 全部原價計算에서는 當期에 發生한 固定費가 期末在庫商品에 包含되어 次期에 移越되는 關係로 當期の 收益에 對應하는 費用이 相對的으로 낮게 表示되고 있으나 直接 原價計算에서는 期末在庫商品 400 個에 對한 單位當의 固定費 100 원(400 個×100 원=40,000 원)이 次期에 移越됨이 없이 當期の 期間費用으로 收益에 對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兩者에서 나타난 利益額의 差異는 期末在庫商品에 包含되어 第 3 年 度에 移越된 固定費額과 同一하게 된다.

第 3 年 度에는 生産量에서는 正常生産量を 維持하였기 때문에 操業度差異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利益에 있어서는 全部原價計算에서 直接原價計算에 의한 것보다 利益額은 10,000 원이 적게 나타난다. 그 理由는 在庫品數量이 期末은 期前에 비해서 100 個가 減少되고 다시 말하면 當期の 生産數量 以外에 期前在庫商品중 100 個가 販賣되고 그 중

에 包含된 前期의 固定費 10,000 원 (100 個×100 원=10,000 원)이 當期の 賣出額에 配賦된데에 起因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當期の 販賣量이 當期の 生産量을 超過한데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第4年度는 生産量이 正常生産量 2,000 個를 達成하지 못하여 不利한 操業度差異를 나타내나 販賣量은 第3年度와 同一한 水準을 維持하는 경우를 例示한 것이다. 이 경우에 全部原價計算의 利益額은 直接原價計算의 그것보다 30,000 원 적게 表示된다. 이것은 前期의 경우와 같이 期前在庫品에 包含되는 固定費가 當期の 賣出額에 賦課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考察한 4期에 걸친 損益計算書에서 우리는 直接原價計算이 갖는 重大한 特徵을 發見할 수 있다. 즉 第1年度를 除外한 各年度の 販賣數量이 同一한데 따라 利益에 있어서도 同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直接原價計算이 갖는 特徵으로서 直接原價計算方法에 따라 作成하는 損益計算書에서는 販賣價格과 製品單位當의 費用이 一定하다고 하는 前提하에서는 生産數量이 增加한다 하더라도 販賣數量이 同一하다고 하면 生産數量의 增減과는 何等의 關係없이 利益은 同一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同一한 條件下에서 全部原價計算에 따라 算定한 利益額은 第2年度에서 84,000 원 第3年度에서 34,000 원 第4年度에서 14,000 원이 된다. 이 例의 重要한 特徵은 4期에 걸친 利益總額이 어떤 方法에 따라 計算하든간에 全體의인 立場에서는 同一하다고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이 나타난 것은 第1年度の 期首 및 第4年度期末에 在庫品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것은 直接原價計算이나 全部原價計算이나 다 같이 結局에 가서는 長期的으로는 利益總額이 同一하게 되나 年次 또는 月次損益計算의 段階에서는 期間利益의 差異를 露呈하게 된다.

이와 같은 直接原價計算과 全部原價計算의 關係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¹⁸⁾

1. 標準生産量(standard volume)에서 賣出과 生産이 均衡을 維持하고 있을 경우에는 直接原價計算이나 全部原價計算은 同一한 利益을 낸다. (前例에서는 第1年度)
2. 生産이 賣出을 上廻할 때는 (例: 在工品 및 完製品의 增加) 全部原價計算의 利益이 直接原價計算의 利益보다 크다. (前例에서 第2年度)
3. 賣出이 生産을 上廻할 때는 (例: 在工品 및 完製品의 減小) 全部原價計算의 利益이 直接原價計算의 利益보다 적다. (前例에서 第3年度)
4. 販賣量은 一定하나 生産量이 變動하는 경우에는 直接原價計算에서 생기는 利益은 一

(18) N.A.C.A. *Research Series* No. 23. Rufus Wixon 編 *Accountants' Handbook* 6.62.

定하다. 이것은 損益이 在庫資産의 變化에 左右되지 않기 때문이다. 同一한 狀況下에서 全部原價計算에서 나타나는 損益은 變動한다. (前例에서 第2年度와 第3年度를 比較하라)

5. 生産量이 一定한 경우에는 直接原價計算이나 全部原價計算의 利益은 다 같이 賣出額에 대해서 正比例한다. (前例에서 第1年度와 第2年度를 比較하라) 利益額은 同一한 方向으로 움직이나 量(amount)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6. 直接原價計算法과 全部原價計算法에 따라 計算한 期間利益의 隔離(divergence)는 短期間보다 長期間에서 僅少하게 나타나는 傾向이 있다. 그것은 生産과 販賣量의 差異가 長期에 걸쳐서는 同一하게 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兩方法에 의하여 計算한 年間利益의 差額이 月次利益의 差額보다 普通은 작게 나타난다. 長期間에 걸쳐 觀察하면 이 方法은 根本的으로는 同一한 結果를 招來한다. 그 理由는 販賣가 繼續的으로 生産을 超過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生産이 繼續하여 販賣를 上廻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直接原價計算과 全部原價計算에 의하여 算出된 期間損益이 이와 같은 差異를 나타내는 것은 이 兩者間의 固定製造費 處理上의 相違에 그 根本的 原因이 있다 함은 前述한 바다. 즉 直接原價計算의 경우에 있어서는 固定製造間接費를 期間原價로하여 收益에 直接 賦課하여 處理하나 全部原價計算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變動原價(素價+變動間接費)와 마찬가지로 製造原價를 構成하는 것으로 보고 製造原價, 在庫資産原價에 配賦·處理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이 兩計算方法에 의하여 算出된 期間損益中 어떤 것이 正確한 것인가? 이 點에 대해서 直接原價計算支持者와 이의 反對者는 各各 自己대로의 論理的 理論을 展開하고 各者의 妥當性を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直接原價計算이 出現한 直後의 이에 대한 論爭의 核心은 根本的으로 外部報告로서의 直接原價計算에 集中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經營管理用具로 나타난 관계로 直接原價計算의 管理的 効用性を 中心으로 論議되었다. 그러나 그후 4분의 1世紀가 經過한 이후 直接原價計算에 대한 論爭의 核心은 점차로 會計學의 基本的 公準으로 移行되어 오늘날 이것은 期間原價論爭, 나아가 資産의 用役潛在力이란 本質問題에서 그 論爭의 根本的 核心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III. 直接原價計算 論爭

1. 初期段階의 論爭

直接原價計算의 初期段階에서 나타난 論爭點⁽¹⁹⁾의 大部分은 이것이 갖는 內部報告

(internal reporting)를 中心으로 提起되었으며 이것은 大部分 外部報告(external reporting)의 領域에까지 擴大되어 論議되었다.

그러면 初期段階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贊反에 따라 各各 그 長短點⁽²⁰⁾으로 區分하여 3

- (19) 初期段階의 論爭點을 取扱한 重要한 諸論文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C. E. Johnson, "Inventory Valuation—The Accountant's Achilles Heel," *The Accounting Review*, Vol. 29, January 1954, pp. 15—29.
- O. Neilsen, "Direct Costing—The Case 'For'," *The Accounting Review*, Vol. 29, January 1954, pp. 89—93.
- S. R. Hepworth, "Direct Costing—The Case 'Against,'" *The Accounting Review*, Vol. 29, January 1954, pp. 94—99.
- H. C. Greer, "Alternative to Direct Costing," *N.A.C.A. Bulletin*, March 1954.
- R. P. Marple, "Direct Costing and the Uses of Cost Data," *The Accounting Review*, Vol. 30, July 1955.
- R. P. Marple, "Try This on Your Class, Professor," *The Accounting Review*, Vol. 31, July 1956, pp. 492—497.
- Brumet, "Try This on Your Class, Professor—A Rejoinder," *The Accounting Review*, Vol. 32, July 1957, pp. 480—484.
- (20) N.A.C.A. *Research Series* No. 23 (*N.A.C.A. Bulletin*, Vol. 34)에서는 直接原價計算이 갖는 長點과 短點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 <直接原價計算의 長點>
1. 利益計劃을 위해서 必要한 「費用·賣出額·利益關係」의 資料가 正規의 會計報告書에서 바로 얻어진다. 따라서 經營者는 異種의 다른 會計資料를 相互 關聯시켜가면서 判斷할 必要가 없게 된다.
 2. 在庫資產의 增減에 立脚한 固定間接費의 吸收額의 變化가 期間利益의 크기에 影響을 주지 않는다. 다른 事情(例: 賣價 單位原價 賣出品의 結合(sales mix)에 變化가 없으면 直接原價計算을 採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利益은 賣出額과 同一한 方向으로 變動한다.
 3. 直接原價計算方式에 의한 製造原價報告書나 損益計算書가 全部原價計算方式에 의한 諸表보다 密接하게 經營者의 思考에 가깝다. 따라서 經營者는 直接原價計算의 報告書를 理解하고 使用하는 편이 容易하다고 생각한다.
 4. 一定期間에서 發生한 固定費의 全額을 損益計算書에 計上하기 때문에 固定費가 利益에 대해서 주는 衝擊이 強하게 나타난다.
 5. 限界利益數字는 共通의 固定費의 配賦에 의해서 計算結果를 모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製品種類別 販賣地域別 顧客의 階級別 其他 經營區分의 相對的인 業績의 評價를 容易하게 한다.
 6. 直接原價計算은 標準原價나 變動豫算과 같은 有效한 原價管理方法과 結合된다. 實際上 變動豫算은 直接原價計算의 一部面이며 따라서 直接原價計算을 이와 같은 目的에 使用한다는 것을 認識하지는 않지만 使用하고 있는 會社가 많다.
 7. 直接原價計算에서 創出해낸 在庫資產原價는 變動費만이다. 이것은 製品의 製造에 必要한 當期의 現金支出額에 아주 接近하고 있다.
- <直接原價計算의 短點>
1. 固定費의 分離에 困難性이 介在된다. 특히 어떤 準變動費는 境界線에 位置하게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固定費要素와 變動費要素의 實際的決定에 到達하기 위해서는 多少 恣意的인 分類가 必要하게 된다.
 2. 完全한 製造原價는 製品의 直接原價計算의 過程에서 算定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長期賣價政策이나 其他 長期의 方針決定에는 正常 또는 其他의 操業度에 立脚한 固定費의 補充的인 配賦를 하여야 한다.
 3. 만약 在庫資產의 評價에서 全部原價制로부터 直接原價制로의 變更이 있다면 重大한 法人稅問題가 發生한다. 그리하여 現在 指導를 위한 決定的인 規定은 存在하지 않는다.
 4. 會計士중에는 直接原價란 것은 株主나 一般公衆을 위해서 作成된 財務諸表에 있어서 在庫資產의 評價基準으로서 認定되는지 어떤지 疑問을 품고 있다. 最近 이 問題에 관해서 廣範한 關心이 나타났다. 그러나 現在는 이 問題에 관한 世人의 意見은 아직 決定되지는 않았다.

개씩을 列擧하고 이것을 再檢討해 보기로 한다.⁽²¹⁾

直接原價計算이 主張되는 初期段階의 長點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 ① 直接原價計算은 變動費 固定費로 區分하여 報告한다.
- ② 直接原價計算은 增分利益分析(incremental profit analysis)에 利用된다.
- ③ 直接原價計算은 利益에서 在庫資產의 變動으로부터 나타나는 影響을 除去할 수 있다.

直接原價計算에서는 變動費 固定費로 區分하여 報告함으로써 經營管理에 有用한 道具를 提供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一般的으로 認定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經營者를 위한 內部報告에서와 같이 株主, 債權者 등의 企業外部에 存在하는 利害關係者에게도 과연 有益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結論을 내릴 수가 없다. 變動費 固定費를 區分하는데 있어서 는 반드시 直接原價計算方法을 採擇하여야 한다는 하등의 理由도 없는 것이다. 實際問題로서는 이와 같은 原價의 分類方法이 종래의 傳統的인 全部原價計算方法을 採擇하고 있는 實務에서도 使用되어 왔던 것이다.

둘째로 主張되는 增分利益分析의 効用性은 前述한 經營管理의 効益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販賣價格決定 및 個別計劃設定에 貢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傳統的인 全部原價計算에서도 直接原價計算에서 追求하고 있는 增分原價分析資料를 求하지 못한다는 理由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問題는 그와 같은 情報(information)가 外部報告書의 利用者에게 어떤 關聯性을 갖느냐 하는 問題에 歸結되게 된다.

셋째의 長點으로서 들고 있는 在庫資產變動의 影響으로부터 結果하는 利益의 變動을 除去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直接原價計算論爭에서 核心을 이루고 있는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例示한 直接原價計算과 全部原價計算의 損益比較에서도 본 바와 같이 販賣가 減少되는 期間에서의 全部原價計算은 販賣量의 減少로 인한 純利益에는 影響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生産量이 維持되고 同期間동안에 發生된 固定生産費의 部分이 在庫資產에 移延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直接原價計算에서는 이 固定費가 初期의 費用으로서 取扱되고 在庫資產에 賦課되지 않기 때문에 純利益은 生産量에 의하여 影響을 받지 않으며 다만 販賣量과 直接的인 關聯을 갖고 增減하게 된다.

이와 같은 在庫資產이 企業의 純利益의 增減에 주는 衝擊은 결국 固定製造費用이 製造原價에 賦課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期間費用(period cost)으로서 收益에 賦課되느냐 하는 本質

(21) 이곳에서 提示하는 論爭點은 다만 그 形態의 分類에 局限하며 그 詳細한 內容에 대해서는 다음 資料를 參考하라.

“Current Application of Direct Costing”, N.A.A. *Research Report* 37,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 1961.

“Direct Costing,” N.A.C.A. *Bulletin*, Vol. 34, April 1953, Section 3.

의인 問題에 그 解決의 열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直接原價計算이 갖는 短點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要約·集計할 수 있다.

- ① 原價를 固定費와 變動費로 區分한다는 것은 實際上 困難하다.
- ② 直接原價計算은 固定費가 갖는 重要性을 無視 또는 過少評價하는 傾向이 있다.
- ③ 直接原價計算은 在庫資產價値를 過少評價한다.

이와 같은 直接原價計算의 短點中에서 첫째의 變動費와 固定費分離의 困難性은 實務的인 觀點에서 充分히 納得할 만 하다. 그러나 이것은 直接原價計算概念을 決定的으로 無視할 程度의 缺點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測定の 問題이며 결코 論理的 理論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變動費와 固定費의 分類는 測定の 問題로서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實務的인 面에서 이 特殊한 測定の 問題는 大部分의 會社에서 效果的으로 解決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²²⁾

둘째의 固定費의 重要性을 無視 또는 過少評價하는 問題는 直接原價計算에 의한 原價가 固定費를 製品에 賦課하지 않고 算定되는 이상 當然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直接原價計算에 의한 價格의 決定(pricing decisions)에서는 諸般原價를 包含한 價格으로 나타나게 된다.⁽²³⁾

셋째로 在庫資產價値의 過少評價問題는 直接原價計算에서는 固定製造間接費를 期間費用으로 하여 製品에 賦課하지 않고 期間의 損費로서 收益에 賦課하는 데서 나오는 當然한 歸結이다. 이에 대하여 從來의 傳統的인 全部原價計算 主唱者들은 固定費의 製品原價의 妥當性을 當然視하고 一般的인 會計慣行에서 使用할 것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最近에 나타난 固定費의 製品原價에 대한 反對意見은 앞으로 會計實務 및 理論에 變化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全部原價計算의 主唱者들은 直接原價計算論者의 固定費의 期間原價에 대한 妥當性에 맞서 이의 製品原價 나아가 在庫資產으로서의 性格에 대한 合理的根據에 立脚한 理論의 妥當性을 提示하지 않으면 안된다. 從來에 使用되던 原價計算方法을 無批判的으로 容認하고 이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提示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單純한 實務技術上의 問題로 그치게 되고 만다.

이와 같이 直接原價計算의 長點이라고 하던 諸主張은 그 自體가 아직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의 反對的 立場에서 短點으로서 規定한 反對側 意見도 直接原價計算을 無視할 程度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22) "Separating and Using Costs as Fixed and Variable," N.A.A. *Bulletin*, Vol. 41, June 1960, Section 3.

(23) A. Matz, O. J. Curry and G.W. Frank, *Cost Accounting*, 3rd edition, p. 789 및 J. W. Neuner, *Cost Accounting*, 6th edition, pp. 783—4.

이와 같은 諸論議는 그것이 無根한데서 出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論議가 皮相的인데 그쳐 直接原價計算과 全部原價計算技術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基本的 諸假定을 攻擊하지 못한 데 그 原因이 있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 이에 대한 論爭은 漸次 그 本質的 問題에 焦點을 찾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熾烈한 論議가 번지고 있다.

다음에는 이 初期段階의 皮相的 論爭을 止揚하고 兩原價計算을 領導하는 基本的諸假定 (basic premises)을 둘러싼 「홍그렌」 및 「소터」(C. T. Horngren and G. H. Sorter)의 「未來原價回避論」(future cost avoidance)⁽²⁴⁾과 이에 反旗를 들고 나온 「페스」 및 「페라라」(P. E. Fess and W. L. Ferrara)의 附加價值論(value-added approach)⁽²⁵⁾을 中心으로 各者의 立場을 보기로 한다.

「홍그렌」 및 「소터」는 現在 「시카고」大學 經營大學院에서 各各 會計學副教授 會計學助教授로 在職중에 있으며 「페스」는 「일리노이」大學에서 「페라라」는 「펜실베이니아」州立大學 經營大學에서 各各 會計學助教授 및 副教授의 職에 있는 것으로서 이들의 直接原價計算을 둘러싼 論爭은 우리에게 많은 問題點을 提示해주고 있다.

2. 「홍그렌」 및 「소터」의 未來原價回避說

前述한 바와 같이 直接原價計算의 中心的 課題는 期間利益을 測定하는 경우에 在庫資產으로부터 固定製造間接費를 除外하여 이것을 期間原價로 處理하는 妥當性 如何에 있다. 이에 대하여 「홍그렌」 및 「소터」兩教授는 1961年 *The Accounting Review* 1月號에 그들의 共同執筆論文 「外部報告를 위한 直接原價計算」⁽²⁶⁾을 發表하여 直接原價計算을 支持하기 위한 未來原價回避說을 展開하고 있다.⁽²⁷⁾

(24) 「홍그렌」 및 「소터」가 主張한 「未來原價回避論」은 그들 自身の 創造的인 創意에서 나온 것은 아니며 이것은 이미 「마플」(R. P. Marple)이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56)의 “Try This on Your Class, Professor”에 掲載한 理論이다. 다음에 보겠지만 「홍그렌」 및 「소터」가 主張한 「수도물」의 例는 「마플」이 “The Teacher’s Clinic”에서 說明한 「全部固定會社」(The All Fixed Company)의 合成肥料의 例와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The authors acknowledge the help of their colleagues, Sidney Davidson, David Green, Samuel Laimon, William Paton, and of William Vatt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라고 하고 「마플」에 대해서는 一言半句도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R. P. Marple, “Try This on Your Class, Professor,” *The Accounting Review*, Vol. 31, July 1956, pp. 492—497; C. T. Horngren and G. H. Sorter, “Direct Costing for Extern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 36, January 1961, p. 84 및 山邊六郎『原價計算論』p. 505 參照

(25) 「附加價值接近法」은 새로운 理論이 아니며 從來 價值的 認識基準으로 經濟學에서 一般的으로 使用되어오던 것이다.

(26) C. T. Horngren and G. H. Sorter, “‘Direct’ costing for Extern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 36, January 1961, pp. 84—93.

(27) 未來原價回避說은 R. P. Marple, “The Teacher’s Clinic,” *The Accounting Review*, 1956에서 『在庫資產이 會社에서 갖는 唯一한 價値는 未來에서 節約되는 原價에 의해서 測定된다』(The

이 논문은 오늘날 内部報告로서는 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는 直接原價計算이 實際의 基盤위에서가 아니라 論理的基盤에서 外部報告로서도 直接原價計算의 妥當성을 立證하려는 것으로서 이 논문은 『(1)直接的原價計算概念은 傳統的原價計算概念보다 現存하는 會計原則의 範圍內에서 보다 首尾一貫性이 豊富하며 (2) 直接原價計算은 外部報告의 利用者에게 現在 利用되고 있는 것보다 한층 有益한 情報을 提供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論證하는 것으로서 이의 概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

兩教授에 의하면 直接原價計算의 支持者는 固定製造間接費는 發生하는 즉시 費用이 된다고 主張하는데 反해서 直接原價計算의 反對論者는 이와같은 原價는 그것이 關係하는 原價가 販賣될 때까지 資産으로 存在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實際上 直接原價計算과 傳統的原價計算의 差異는 「타이밍」의 相違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問題의 中心的 課題를 資産과 費用의 性質에 歸結시키고 이의 會計概念을 再吟味하고 있다.

오늘날 資産概念으로 널리 認定된 概念을 이들은 用役潜在力(service potential)에서 찾고 또한 費用은 用役潜在力の 消費(expiration of service-potential)에서 求하는 것도 一般的으로 認定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資産의 用役潜在力에 대한 概念을 「美國會計學會」(A.A.A.)의 『會社財務諸表에 관한 報告의 基準』(*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57 Revision)과 「페이튼」 및 「리틀턴」(W. A. Paton and A. C. Littleton)의 『會社會計基準序說』(*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에서 또 費用의 概念은 前記한 A.A.A.의 報告書에 發表된 概念을 引用하고 있다.⁽²⁸⁾

only value an inventory has to a company is measured by the costs which will be saved in the future)라든가 『會計期末에 있어서의 在庫資產價値는 未來에 있어서 節約되는 原價에 의하여 測定된다』(The worth of an inventory at the end of an accounting period is measured by the cost which will be saved in the future period)라는 말에서 이미 展開되었다.

- (28)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에서 發表한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57 Revision,”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57, p. 538 에서 資産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Assets are economic resources devoted to business purposes within a specific accounting entity; they are aggregates of service-potential available for or beneficial to expected operations. The significance of some assets may be uniquely related to the objectives of the business entity and will depend upon enterprise continuity.” 또한 同報告書의 p. 540 에서는 “When the service-potential of a given asset is no longer available to the enterprise …… the acquisition cost of the asset, as modified by events subsequent to acquisition, should be eliminated from the accounts and any final gain or loss on disposition recognized.”

W. A. Paton and A. 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40, p. 65 에 의하면 “Any type of cost may be deferred if it originates in a justifiable expenditure and represents a factor from which future benefit or contribution can reasonably be anticipated.”

또한 費用(asset expiration)에 관한 A.A.A.의 同委員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Expired costs are those having no discernible benefit to future operations. They may be classified as expense or loss.”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上掲書 p. 541)

兩教授는 資産의 概念을 上記한 報告書 및 著書에서 規定한 用役潛在力에서 또 費用을 用役潛在力の 消費에서 求하고 『原價는 그것이 未來에 正當하게 移越될 수 있는 것이라면 또한 그것이 未來의 營業活動에 便益을 提供할 수 있는 것이라면 즉 그것이 用役潛在力を 갖는 것이라면 資産이다』라고 結論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固定製造間接費를 資産으로서 取扱하는 것이 正當하다는 것을 立證하기 위해서는 이 原價가 用役潛在力を 갖는지의 與否에 대한 「테스트」(test)를 거칠 必要가 있다.

그런데 이 用役潛在力이란 概念은 未來에 대한 期待(expectations)에 依存하고 있다. 한편으로 用役潛在力の 思考(idea)를 하여 意味있는 것으로 하고 測定可能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未來에 대한 若干의 假定(assumption)이 必要하다. 이와같이 兩教授는 用役潛在力에 대해서 期待와 假定의 2側面에서 觀察하고 이중 期待는 어떤 原價를 資産으로 하여 保留하고 그 原價를 다른 種類의 資産으로 轉換하고 혹은 그의 原價를 費用으로서 拋棄하는 意思決定에는 不可缺의 要素라고 한다.

따라서 資産이나 또는 費用이나 하는 것을 決定하는데 基礎가 되는 假定은 널리 一般에 適用可能하고 合理的인 것이 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하며 資産으로서의 必要條件은 『未來의 便益이나 貢獻이 合理的으로 豫測될 수 있는 것』(Future benefit or contribution can reasonably be anticipated)이라고 한다.

直接原價計算의 問題는 결국 固定製造間接費 處理의 基礎가 되는 假定이 合理的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決定되며 또한 이 경우의 假定이 一般의 資産 및 費用을 取扱하는데 基礎가 되는 假定과 首尾一貫性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決定된다.

그러면 資産·費用의 二區分(dichotomy)에서 支持하는 假定 다시 말하면 用役潛在力の 假定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兩教授는 資産 또는 費用을 區分하는 假定은 繼續企業(going concern)의 概念⁽²⁹⁾이며 이 繼續企業의 公準이 未消費原價(inexpired cost)에 대한 用役潛在力を 說明하기 위해서 必要한 唯一한 假定이라고 하고, 다음에 說明하겠지만 固定間接費는 이와같은 假定을 設定한 경우에 用役潛在力を 갖지 못한다고 한다.

(29)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57 Revision,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57, p. 537에서 繼續企業(going concern)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The going concern' concept assumes the continuance of the general enterprise situation. 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the entity is viewed as remaining in operation indefinitely. Although it is recognized that business activities and economic conditions are changing constantly, the concept assumes that controlling environmental circumstances will persist sufficiently far into the future to permit existing plans and programs to be carried to completion."

兩教授는 「資產은 關聯原價라야 한다」라는 題目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會計는 經營者 出資者 및 其他 모든 利害關係者가 意思決定을 하기 위한 用具이다. 따라서 會計가 意思決定에 寄與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現在의 財務報告를 判斷하기 위한 支配的 基準이라고 하고 『만약 어떤 原價가 未來活動에 대해서 何等의 影響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意思決定에 대해서 關聯이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寄與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資產은 關聯原價(relevant costs)⁽³⁰⁾ 즉 未來活動의 結果에 대해서 影響을 주는 原價만으로 構成되어야 한다. 만일 原價가 未來活動의 結果에 대해서 影響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未來의 原價發生에 대해서 影響을 주지 않기 때문에 用役潛在力을 갖지 못한다.』

「홍그렌」 및 「소터」教授는 原價가 資產이란 이름으로 呼稱되기 위해서는 關聯原價가 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提言하고 있다. 그러면 이 原價는 무엇에 關聯性을 갖는가? 여기에서 未消費原價가 關聯을 갖는 一聯의 事件(events)을 豫測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또한 合理的인 假定은 企業의 繼續性(繼續企業)이다.

原價는 繼續企業概念에 의해서 想像된 것으로서 未來活動에 關聯이 있을 때 資產이 된다. 資產은 用役潛在力으로서 企業의 便益을 위해서 用役의 集團(bundles of services)을 未來에 消費하는 權利를 意味한다. 이와같이 資產의 認識은 未來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決意를 意味한다. 만일 現在 發生한 原價가 普通의 經營過程에서 未來原價의 回避(future cost avoidance)라고 하는 結果가 나타나면 傳統的인 意味에서 用役潛在力을 갖는다고 提言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資產(未消費原價)은 보통은 未來에 再發生을 必要로 하지 않는 原價이다. 만일 未來原價의 回避가 問題의 原價에 의해서 影響을 받지 않는다면 그 原價는 未來의 事件에 關聯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 便益도 어떤 未來의 用役도 體現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繼續企業의 假定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非關聯原價」(irrelevant costs)는 결코 資產으로 되지 않는다.

換言하면 어떤 原價의 存在를 위해서 企業 未來의 總費用이 減少된다고 하면 그 原價는 未來에 대해서 關聯性을 가져 資產이 되며, 그렇지 못하면 (萬一 未來의 總費用이 減少되지 않는다면) 그 原價는 未來에 대해서 關聯性을 갖지 않고 消滅되고 만다. 그리하여 概

(30) relevant costs란 經營者 出資者 및 其他 利害關係者들의 未來活動에 關聯된 原價 다시 말하면 그들의 意思決定에 關聯된 原價(費用)로서 이와 같은 原價가 아니면 用役潛在力을 갖지 못한다고 「홍그렌」 및 「소터」教授는 말하고 關聯原價를 非關聯原價(irrelevant costs)와 關聯시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Relevant costs are the only costs that have a bearing on managerial or investment decisions. But what are relevant costs? Relevant costs are those costs that will be different between two or more future actions, those costs that may be avoided by not undertaking a given alternative. Irrelevant costs are those that have no influence on a decision because they remain the same for all alternatives regardless of the choice.

念上 어떤 原價는 다음 두가지 方法 즉 『(1) 同一種類의 原價의 再發生을 回避함으로써 (2) 未來에 있어서 別個의 原價(아마 機會原價)를 減少시킴으로써 未來原價를 減少시킬 수 있다.』

兩教授는 이렇게 말하고 위의 두가지 方法중에서 實際上 (1)의 경우의 原價回避만이 資產化된다고 한다. 어떤 原價가 資產인가 아닌가를 決定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適用되고 있는 「테스트」는 그 原價의 缺如가 繼續企業으로서의 正常的인 業務를 維持하기 위해서 代替인 費用(replacement expenditure)을 必要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있다. 다음에 說明하겠지만 商品在庫는 第1種에 속하는 原價回避이기 때문에 資產化된다. 이에 대해서 從業員訓練計劃의 實施는 第2種의 原價回避를 表示한다. (예를 들면 訓練不足에 의한 未來損失을 回避하므로) 그러나 이것은 普通 資產으로 하지 않고 費用化한다.

여기에서 「홍그렌」 및 「소터」 兩教授는 購入原價制約(original cost restriction)의 妥當性與否는 우리들(兩教授)이 關係할 必要가 없으며 또 關係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購入原價의 制約이 있든 없든 未來原價로서의 資產概念이 妥當한 것이라고 하고 「未來原價回避概念」(the notion of future cost avoidance)에 대한 다음과 같은 例를 들고 있다.

小賣商의 商品在庫는 資產이다. 그것은 이미 發生한 購入原價를 다시 發生시킴이 없이 이 商品을 消費할 (즉 販賣할) 權利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繼續企業의 假定을 採用한다고 하면 이 權利는 未來의 使益을 提供한다. 왜냐하면 過去에 있어서 이 原價의 發生은 正常的인 業務를 遂行하기 위해서 必要한 未來의 購入을 回避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兩教授는 『우리가 商品在庫의 原價를 가지고 繼續企業의 未來에 대해서 關聯性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것을 注意시키면서 이것은 『이 在庫의 缺如가 企業의 現在와 같이 同一하게 正常的인 業務를 繼續 維持할 수 있는 狀態에 놓기 위해서 未來의 支出을 必要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에 前拂地代, 未經過保險料 및 其他 同種의 前拂費用도 이미 發生한 原價의 再發生을 隨伴하지 않고 固定設備를 使用하는 權利 保險給付를 받는 權利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權利가 資產인 것은 正常的인 業務를 繼續 維持하기 위해서는 이런 種類의 權利의 缺如가 同種原價의 새로운 取得을 必要로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工場建物 設備 및 土地도 原價의 再發生을 隨伴하지 않고 未來에 使用할 權利를 갖고 있기 때문에 資產이라고 할 수 있다. 工場建物 및 設備의 價額(costs)은 未來活動에 대해서 關聯性을 갖는다. 그 理由는 繼續企業을 正常的으로 運營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費用(costs)을 缺如하고서는 어떤 「固定資產費用」(fixed asset costs) (家賃 또는 資

本의 支出)의 再發生을 必要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兩教授는 『概念上 어떤 未來原價의 回避가 되는 原價는 關聯性을 갖는 것으로서 이것이 資產이다』라고 한다. 이와같은 見地에서 資產을 考察하면 用役潛在力의 有無를 決定하는 唯一한 假定은 繼續企業이다.

이와같은 接近方法에 따라 考察하면 어떤 未來原價의 回避가 되지 않는 過去費用(costs)의 發生은 資產으로서의 資格을 갖지 못한다. 例를 들면 未來原價의 回避를 包含하지 않는 在庫額은 經濟財로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資產이 아니다. 어떤 집 主人이 月 2弗의 定額料金を 支拂하고 必要한 만큼의 물을 얼마든지 使用한다고 假定하자. 가령 그가 每月末 100병의 물을 在庫로서 保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在庫는 資產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 主人은 正常的인 事務의 遂行過程에서 未來에 물을 使用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그 100병의 물은 未來의 原價의 發生과는 하등의 關係가 없다. 그의 未來原價總額은 물의 在庫에 대한 그의 決意에 의해서 影響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未來에서 必要로 하는 물은 어떤 増分原價(incremental)를 隨伴하지 않고 入手할 수 있다. 決定的인 「테스트」는 未來原價의 回避에 있다. 만일 어떤 項目이 増分原價 零으로서 再取得할 수 있고 또 正常的인 業務에 使用할 수 있다고 하면 그의 費用(costs) 또는 物量은 用役潛在力을 表示하지 못한다. 換言하면 그의 缺如는 總未來原價에 대해서 影響力을 갖지 못한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兩教授는 未來原價回避概念을 意味있는 例를 통하여 例證하고 結論의으로 「變動製造間接費의 性質」(nature of variable costs)와 「固定製造間接費의 性質」(nature of fixed factory overhead)이란 두 項目에서 各各 다음과 같이 그 性格을 規定하고 있다.

『正常的인 狀況에서 直接材料費 直接勞務費 및 變動製造間接費는 資產이다. 왜냐하면 1 期間에 이들의 費用(cost)을 發生시키는 決意가 未來原價의 總額을 減少시키기 때문이다. 이들의 費用의 缺如는 繼續企業으로서의 正常的인 業務를 維持하기 위한 代替의 費用(replacement expenditure)을 必要로 한다.』

『傳統의 原價計算의 支持者들은 利益은 生産高가 販賣高와 同一한 경우 보다도 生産高가 販賣高를 超過하는 경우가 크다고 主張한다. 왜냐하면 固定設備가 보다 有用하게 利用되어 未來의 收益을 낚는 在庫資產의 形態에 의해서 보다 많은 便益이 賦與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直接原價計算의 支持者는 固定製造原價는 生産能力을 準備하는 費用이라고 主張한다. 이 生産力이 完全히 利用되는 利用되지 않는 固定費의 消費에 관한 한 普通은 關聯性이 없다. 그들의 主張에서 刮目할 만한 要素는 販賣에 우선하여 生産은 普通 未來期間

에 있어서 固定製造間接費를 回避하지 않는다고 하는 點에 있다. 當期の 固定製造間接費의 發生은 普通 次期에 있어 同種 固定費의 再發生에 대해서 何等의 關係가 없다. 時計가 째 各々 各함에 따라서 固定費는 死滅하고 次期以後의 生産을 繼續 遂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여러가지 固定費의 集團(bundles)이 補充되어야 한다.』

以上이 「홍그렌」 및 「소터」兩教授의 資産概念의 要旨로서 이것은 그의 論文 第1部分 「資産이나 費用이나」(Asset or Expense)를 이루는 主要内容이다. 兩教授는 그의 第2部分 「固定製造間接費와 資産」(Fixed Factory Overhead and Assets)에서 固定製造間接費가 資産이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은 要旨로 記述하고 있다.

固定製造間接費는 다만 그것이 用役潛在力을 表示할 경우에 限해서만이, 즉 今期の 生産에 의한 이 原價의 使用이 未來原價의 總額을 減少시킬 경우에 限해서만이 在庫資産의 價額을 形成한다. 그러면 어떤 假定下에서 이와같은 未來原價의 總額을 減少시키게 되는가? 단지 今期에 生産하여 損失을 본 것이 未來期間에서 追加的인 原價(additional costs)를 誘發할 경우에 限해서만이 今期の 固定製造間接費의 發生이 未來原價의 總額을 減少시킨다. 換言하면 在庫資産이 當期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未來期間에서 豫定業務를 維持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追加原價가 發生되지 않아서는 안될 경우에 한해서만이 今期の 固定製造間接費의 發生이 未來原價의 總額에 減少를 가져온다.

이와같은 경우 固定製造間接費의 在庫資産化를 合理化하기 위해 必要한 未來에 관한 便宜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³¹⁾

<假定 1>

未來의 生産額이 最大의 操業度로서 이루어지고 未來의 賣出額이 當期末在庫額의 增加額만큼 最大操業度を 超過하고 있는 경우. (Future production at maximum capacity with future sales in excess of capacity by the amount of increase in ending inventory)

<假定 2>

變動製造原價의 騰貴가 豫期되는 경우. (Variable production costs are expected to increase)
追加的諸假定 (Additional assumptions)

「홍그렌」 및 「소터」兩教授는 固定製造間接費가 資産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列擧한 諸便宜가 必要하다고 한다. 그러나 『固定製造間接費의 資産化는 단지 繼續企業의 假定 이상의 諸假定을 設定하는데 充分한 根據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이 正當化된다』고 하고, 『固定製造間接費는 단지 非正常的인 狀況(atypical conditions)에서만 資産이 된다』는 것을 提

(31) 이곳에서 設定한 假定 1, 假定 2 및 追加的諸假定에 대해서도 詳細한 說明이 있으나 이에 대한 說明은 省略하기로 하고 그 項目만을 羅列하였다.

示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種類의 季節의 企業에 있어서는 假定 1 과 같은 繼續企業 以外의 追加의 假定이 固定製造間接費의 資產化에 대한 根據가 된다.

지금까지 보아온 第 1 部分「資產이나 또는 費用이나」第 2 部分「固定製造間接費와 資產」이 序頭에서 要約한 『直接原價計算概念은 傳統的原價計算概念보다도 現存하는 會計原則의 範圍內에서 보다 首尾一貫性이 豊富하다』는 主張의 內容이다. 『直接原價計算은 外部報告의 利用者에게 現在 利用되고 있는 것 보다 한층 有益한 情報를 提供한다』는 『報告의 有益性』은 다음에 說明할 것이어야 하나 本稿의 論外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固定費의 非資產性을 正當化하기 위한 中心의 論理「未來原價回避說」과 이에 附隨되는 약간의 追加의 說明으로 끝맺기로 한다.

다음에는 「未來原價回避說」에 對한 批判으로서 「페스」 및 「페라라」의 「附加價值說」을 보기로 한다.

3. 「페스」 및 「페라라」의 附加價值說

「페스」 및 「페라라」兩教授는 未來原價回避概念의 主張⁽³²⁾에 대하여 「利益測定을 위한 期間原價概念——그것은 擁護될 수 있는가?」(“The Period Cost Concept for Income Measurement—Can It Be Defended?”)⁽³³⁾ 라는 論文을 통하여 期間原價概念은 期間利益測定上 適切하지 않다고 하는 立場을 취하고 「未來原價回避說」을 否定하고 있다.

다음에는 本 論文의 概要를 살펴보고 오늘날 直接原價計算의 진정한 問題點이 어디에 있는가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페스」 및 「페라라」兩教授는 그들의 論文序頭에서 『近年에 와서 經營의 意思決定目的을 위해 보다 有益한 財務的 情報를 提供하는데 期間原價概念(period cost concept)이 가장 有用하다는 것을 會計士들이 發見하게 되었다』고 하고 이 期間原價概念은 原價資料를 2 個의 廣範圍한 範疇로 區分할 수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期間原價(period cost)로서 이것은 時間과 關聯된 諸原價로서 예를 들면 經營活動의 量에 따라 消費되는 것이 아니라 時間의 흐름에 따라 消費되는 原價이고 다음 하나는 製品原價(product cost)로서 이것은 生産된

(32) 「페스」 및 「페라라」教授는 未來原價回避說의 主唱者로서 그들의 論文〔註〕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確認시키고 있다.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Preceding Statements and Supplements*, 1957, p. 10; Raymond P. Marple, “Try This on Your Class, Professor,”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56, p. 497; Charles T. Horngren and George H. Sorter, “Direct Costing for Extern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1961, p. 84.

(33) *The Accounting Review*, Vol. 36, October 1961, pp. 598—602.

製品과 關聯된 原價로서 例를 들면 經營活動의 量에 따라 直接的으로 影響을 받는 原價이다.

이와같은 期間原價概念下에서는 變動製造原價만이 在庫資產化(製品原價)하고 固定製造費用을 包含한 販賣 및 管理費는 期間原價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兩教授는 利益測定目的을 위해서 期間原價概念은 不適當하다는 것을 論證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立證하기 위해서는 利益測定過程을 再考할 必要가 있다는 것으로서 利益測定과 關聯이 있는 原價範疇를 다음과 같이 表示하고 있다.

- (1) 未消費 用役潛在力の 原價 (costs of unused service potentials)
- (2) 未來의 利益去來에 關聯이 있는 消費된 用役潛在力の 原價(costs of used service potentials related to future income transactions)
- (3) 現在의 利益去來에 關聯이 있는 消費된 用役潛在力の 原價(costs of used service potentials related to current income transactions)
- (4) 虛費된 用役潛在力の 原價 (costs of wasted service potentials)

이와같은 4 原價範疇에서 (4)의 「虛費된 用役潛在力の 原價」만이 眞正한 期間原價를 表示한다. 「虛費」(wastes)가 期間原價로 된다고 하더라도 企業의 어떤 原價가 期間原價이고 製品原價인가 하는 것을 指摘하는 것이 兩教授의 意圖한 바는 아니며 그들의 意圖는 期間原價對 製品原價로 原價를 分類한다는 것이 利益測定過程과 關聯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論證하려는데 있다.

그러면 收益은 언제 稼得되는가? 그것은 다만 한 時點 즉 現收益測定實務에서 適用되고 있는 것 같이 販賣의 時點에서만 稼得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收益은 生産과 販賣의 全過程을 通하여 稼得되는가?

이에 대해서 兩教授는 『조금만 深思熟考하면 收益은 生産諸要素에 效用 즉 價値가 附加됨으로써 稼得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生産諸要素를 結合함으로써 時間的 場所의 效用을 통한 生産諸要素에 價値를 附加한다. 生産諸要素를 連絡시킴으로써 效用이란 形態로서 生産諸要素에 價値를 附加한다. 消費者에게 配達해주는 것도 또한 時間과 場所를 통해서 價値를 附加한다. 生産 및 販賣過程을 통한 效用의 附加는 眞實로 利益測定을 위한 「附加價値」接近法(“value added” approach)이다.

다른 觀點에서 보면 收益은 營業活動의 總體, 例를 들면 企業의 利益 또는 損失을 最終的으로 남는데 寄與한 必要한 모든 企業의 活動에 의해서 稼得된다. 原材料의 購入에서 最終生産物의 生産 및 販賣를 통한 모든 企業努力은 企業活動을 위해서 必要한 것이다.

「附加價值」概念에서의 收益은 價值라는 말로서 測定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價值는 『企業이 生産諸要素를 購入하는데서 出發하여 最終生産物의 販賣를 통한 生産 및 販賣活動에서 要素費用(factor costs)에 附加된 價值』를 意味한다. 對應(matching)이란 用語를 使用하여 이루어지는 『利益測定이란 要素費用에 現在까지의 附加價值를 加算한 總體와 期初의 要素費用 및 附加價值와를 比較하는 過程에 불과하며 이것은 同期間동안에 生産諸要素에 附加된 價值의 金額 즉 利益의 差를 決定하기 위한 것이다.』

附加價值概念下에서의 收益은 生産諸要素에 效用이 附加되고 또 附加되는 程度까지 稼得된 것으로 看做하게 된다. 生産期間동안에 生産한 모든 것을 販賣하고 投入된 諸要素를 使用하는 會社에서는 附加價值概念을 통한 利益測定에 困難性이 存在하지 않는다. 그것은 時間的 場所的으로 價值가 附加되는 效用이 生産諸要素의 在庫가 없기 때문이며 이와같은 경우에 利益은 販賣와 販賣하기 위해서 所要된 原價를 比較함으로써 간단하게 測定할 수가 있다.

그러나 在庫品이 存在하는 會社의 경우에 있어서는 在庫評價問題가 나타나게 된다. 價值가 決定되어야 할 在庫品에는 原材料 在工品 및 完製品이 있으며 附加價值概念에 따라 이 세 種類의 在庫品評價를 위한 基準은 다음과 같다.

在庫品の 形態	評價의 基準
原 材 料	原價+購買한 후에 附加된 時間的 場所的 效用
在 工 品	原價+購買한 후에 附加된 時間的 場所的 效用+完成段階에 까지 形成的效用比率
完 製 品	原價+購買한 후에 附加된 時間的 場所的 效用+形成的效用

다른 方法으로 外上賣出金 및 在庫品등과 關聯하여 評價한 資產評價는 다음과 같이 表現할 수 있다.

資產의 形態	評價의 基準
外上賣出金	販賣價格
完 製 品	販賣價格-處分費와 販賣 및 運搬을 통해 獲得한 效用
在 工 品	販賣價格-完成費, 配置費 未完成部分과 關聯된 形成的效用, 販賣 및 運搬을 통해 獲得한 效用.
原 材 料	販賣價格-完成費, 配置費 生産 販賣 및 運搬을 통해 獲得한 效用

兩教授는 이상과 같이 例示하고 『이것은 자세히 觀察해 보던 在庫評價는 原價에 現在까지의 附加價值를 加算한 基準에 立脚한다는 結論을 當장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이에 附言해서 『一期間동안에 稼得한 利益은 同期間동안에 生産諸要素에 附加된 價值와 同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附加價值概念은 現在の 會計慣行에서 어떻게 說明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兩教授는 表面上으로는 附加價值概念은 現在の 利益測定慣行과 全然 無關한 것 같이 보이나 이것은 眞實이 아니라고 하며 오늘날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慣行에서 利益測定을 위해서 使用되고 있는 『對應過程과 同一한 形態를 附加價值概念은 包含한다』고 한다. 그러나 現在の 會計慣行과 附加價值概念上의 唯一한 差異點은 利益이 稼得된 것으로 看做하는 時點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서 附加價值概念下에서는 效用이 生産要素에 附加됨으로써 利益이 稼得된 것으로서 看做하나 現在の 會計慣行에서는 利益은 販賣時點에서 稼得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兩教授는 附加價值概念과 現在の 會計慣行과의 根本的인 相違點은 「타이밍」의 문제라고 한다. 現在の 慣行에서는 收益이 客觀的으로 把握될 때까지 그 認識을 延期한다. 이 延期는 効用的 増分 및 効用的 増分에 歸屬하는 價値를 測定하기가 困難하다는 말로서 合理化될 수 있다. 명백히 現在の 慣習에서는 收益의 認識이 약간 遲延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客觀性을 얻기 위해서는 當然한 措置라고 할 수 있다.

兩教授는 附加價值概念下에서의 資産은 (1) 現金型資産(cash type assets)와 (2) 未稼得收益과 關聯된 未使用된 用役潛在力의 原價(costs of unused service potential related to unearned income)의 2種이라고 하고 未使用된 用役潛在力의 原價는 生産過程에서 아직 効用化되지 않는 生産諸要素와 關聯된 原價라고 한다. 現金型資産은 現金 未收金 및 어떤 形態의 效用이 附加된 在庫品이다. 이 現金型資産은 原材料 在工品을 包含한다.

만일 客觀性을 얻기 위해서 收益의 認識을 遲延시키려면 반드시 遲延된 收益과 關聯된 모든 原價의 認識을(損益計算書上에서) 遲延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일단 原價의 用役潛在力이 收益의 產出에 消盡되어 버렸다면 그런 原價는 產出된 收益과 關聯을 가져야 한다. 만일 收益의 認識이 遲延되면 그 收益과 關係된 原價의 認識도 延期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現在の 會計慣行에서 遲延되는 收益은 論理的으로 다음 3種으로 區分할 수 있다. (1) 現金型資産(cash type assets) (2) 未收收益과 關聯된 未使用 用役潛在力(costs of unused service potential related to unearned income) (3) 稼得은 됐으나 認識되지 않은 收益과 關聯된 消費된 用役潛在力의 原價(costs of used service potential related to earned but unrecognized income). 現在の 會計慣行에 따라 이와 같이 資産을 再分類하면 現金型資産에서는 原材料 在工品 및 完製品在庫를 包含하지 않으며 收益認識의 遲延은 資産의 (3)類型을 必要로 하며 이 곳에서 原材料 在工品 및 完製品在庫를 包含하게 된다. 이 (3)類型이 收益은 稼得되었으나 아직 認識되지 않아 收益이 認識될 때까지 延期될 要素費用을 包含하게

되는 것이다. 이 「移延原價」(delayed costs)는 自然히 「移延收益」(delayed revenue)과 關聯된 모든 要素費用을 包含하게 된다.

이와같은 「移延原價」는 將來의 便益 또는 効用과는 하등의 關係가 없으며 反對로 生産 및 販賣의 全過程에 關係가 있다. 이것은 또한 그의 認識이 遲延되고 있는 收益의 獲得過程에서 使用된 形成的 時間的 場所의 原價를 表示한다. 換言하면 이 「移延原價」는 그의 認識이 遲延되어 있는 收益과 關係가 있으며 어떤 將來의 便益이나 効用에는 關係가 없다.

따라서 『變動原價만이 將來의 原價支出을 減少시키기 때문에 企業에 便益을 提供한다고 하여 變動製造原價만을 在庫資産에 計上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사람들은 收益의 認識이 遲延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利益測定의 本質을 잘못 理解하고 있는 것이다. 將來의 便益은 在庫資産評價와 아무런 關係가 없다. 在庫資産은 收益을 獲得하는 過程에서 使用된 모든 原價를 表示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以上과 같이 「페스」 및 「페라라」 兩教授는 附加價值說의 立場에서 未來原價回避說을 批判하고 다음에 『在庫資産은 移延原價이기 때문에 期間原價·製品原價(固定費·變動費)의 區分은 利益測定에는 關係가 없다』고 主張한다.

企業에서 發生한 모든 原價는 그것이 發生한 目的 즉 豫測되는 用役潛在力에 비추어 考察하여야 한다. 生産過程에서 用役潛在力은 消費된다. 例를 들면 固定費(期間原價) 變動費(製品原價)의 적어도 一部分은 生産過程에서 消費된다. 이와같은 原價는 提供해야 할 用役潛在力을 가지며 이 用役潛在力이 消費되면 그 消費된 用役潛在力에 關聯된 要素原價는 消費된 原價에 關係한 收益의 認識이 遲延될 경우에는 移延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消費된 固定製造原價가 移延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 固定製造原價가 期間原價라고 主張하는 것은 事實上 固定製造原價要素에 用役潛在力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물론 이것은 또한 固定原價要素를 獲得한다는 것이 賢明치 못하고 重要치도 않은 支出決意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固定費는 明白히 다른 모든 原價와 마찬가지로 營業活動을 遂行하는데 必要 不可缺한 것이므로 利益測定에 固有의 費用·收益對應의 一部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收益의 認識이 遲延되면 그 收益獲得과 關聯된 모든 原價(固定費 및 變動費)는 在庫資産의 形態로서 移延되어야 한다.

利益測定의 觀點에서 볼 때 製造 販賣 管理諸費用간의 嚴密한 區別이 없다는 것은 注意하여야 한다. 만일 販賣 및 管理費가 遲延된 收益과 關聯하여 發生된다고 하면 그에 適當한 販賣 및 管理費가 移延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反對로 會計慣行에서는 販賣費 및 管理費는 一般的으로 移延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移延된 部分의 測定이 困難할

뿐만 아니라 年度の 兩期末에 同一한 處理(즉 誤謬)를 한다면 結局에 가서는 利益의 數値에는 別差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便宜에 立脚한 會計慣習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製造原價를 期間 및 製品原價로 區分하는 외에 그 밖에도 많은 分類方法이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이 原價要素를 獲得하려는 決意가 合理的이고 適切하다고 하면 이들 原價는 반드시 用役潛在力을 가지며 또 그 用役潛在力이 消費될 때에는 그것이 產出한 收益에 對應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收益의 認識이 遲延되면 消費된 用役潛在力은 在庫資產의 形態로서 移延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페스」 및 「페라라」 兩教授는 『上記한 原價分類(期間原價・製品原價)가 利益測定 以外の 目的을 위해서는 그의 有用性を 否定하지는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期間原價概念의 管理上の 價値를 認定하고 다만 兩教授가 反對하는 것은 『그와 같은 原價分類는 利益測定과는 하등의 關係가 없다』고 하는 點이다.

이상과 같은 論理에 立脚하여 利益測定上の 立場에서 唯一하고 適當한 原價의 類型(categories)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 (1) 未消費 用役潛在力の 原價
- (2) 未來의 利益去來에 關聯이 있는 消費된 用役潛在力の 原價
- (3) 現在의 利益去來에 關聯이 있는 消費된 用役潛在力の 原價
- (4) 虛費된 用役潛在力の 原價

여기에서 類型 (1)과 (2)는 貸借對照表 項目이며 類型 (3)과 (4)는 損益計算書 項目이나 이와같은 原價類型은 모두 그 取得時의 原價에 固有한 用役潛在力과 關係가 있다. 用役潛在力이 아직 存在하고 있으면(類型 1) 그 原價는 資產으로 處理되어야 한다. 用役潛在力이 그 認識이 遲延되고 있는 利益의 發生에 費消됐다고 하면 그 原價(類型 2)는 資產으로서 移延되어야 한다. 用役潛在力이 當期の 利益 產出에 費消됐다고 하면 그 原價(類型 3)는 損益計算書의 費用으로 處理되어야 한다. 用役潛在力이 利益產出에 使用되지 않고 虛費되었다면 그 原價(類型 4)는 損益計算書上 損失로서 取扱하여야 한다.

類型(4)만이 實로 唯一한 期間原價이다. 그것은 어떤 利益에도 貢獻하지 못하고 따라서 用役潛在力이 虛費된 期間의 損失로서 處理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原價의 類型은 모두 그것이 產出하는데 寄與한 收益에 關係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收益이 損益計算書에서 認識될 때에는 언제라도 그것을 產出한 原價도 또한 損益計算書에서 認識되어야 한다. 收益의 認識이 遲延되는 경우에는 그에 關係한 原價는 모두 收益이 認識되는 將來의 期間까지 貸借對照表에 移延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原價가 위에서 概述한 바와 같이 取

扱되지 않는다면 利益은 適正하게 測定될 수가 없다.

以上에 본 것이 「페스」 및 「페라라」 教授의 附加價值說에 의한 直接原價計算의 批判이다.

IV. 直接原價計算의 中心課題

앞에서는 直接原價計算을 둘러싼 未來原價回避論과 이의 對立的 立場에 선 附加價值說을 中心으로 各各의 論旨를 考察하여 보았다.

原價計算方法에 對한 이 둘 學說은 오늘날 直接原價計算의 가장 큰 問題點으로 登場하고 있는 外部報告의 機能을 正當化할 수 있느냐 하는 決定的 解決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서 많은 關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홍그렌」 및 「소터」의 未來原價回避論과 「페스」 및 「페라라」의 附加價值論을 中心으로 하고 이에 關聯된 諸學者의 主張을 綜合해 볼 때 오늘날 直接原價計算이 갖는 가장 重要한 問題點은 財務諸表的 觀點에서 接近하여 (1) 利益測定上的 問題點 (2) 資產測定上的 問題點으로 區分할 수가 있다. 물론 이 兩者間的 關係는 相互 獨立 分離된 別個의 問題가 아니며 相互 密接한 因果關係를 가지고 있다. 換言하면 利益測定上的 問題는 結果의 結果로 資產測定上的 問題로 歸結될 것이며 資產測定上的 問題는 逆으로 利益測定의 結果로서 解釋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財務諸表的 接近에 依한 損益測定의 問題에서 이 直接原價計算이 提起하고 있는 問題點은 期間原價와 製品原價의 區分 處理를 중심으로 한 期間原價概念을 그 具體의 內容으로 할 것이다. 다음에 資產測定의 問題에서 混亂의 核心을 이루는 問題는 오늘날 資產概念의 中核을 이루는 用役潛在力의 本質이 무엇인가 하는데 있다. 이에 對한 接近方法으로서 原價回避概念(cost obviation concept) 收益產出概念⁽³⁴⁾(revenue production concept) 및 附加價值概念(value-added concept)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後兩者間에 概念上的 差異는 있다 하더라도 本質的인 類似性이 있는 關係로 이것을 收益產出概念에 統合하여 各各의 立場을 綜合하기로 한다.

(1) 利益測定上的 問題點

直接原價計算과 傳統的인 全部原價計算論爭에서 가장 重要한 問題點으로 登場한 것은 固定製造原價를 製品原價 期間原價중 어느 것으로 處理할 것이냐에 있다. 從來의 會計慣習에서는 固定製造原價를 製品原價로 取扱하여 報告하였다. 그러나 直接原價計算에서는

(34) J. M. Fremgen, "Variable Costing for External Reporting—A Reconsidera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 37, January 1962, p. 78.

이것을 전적으로 期間原價로 取扱한다. 따라서 問題는 固定製造原價의 本質에 關係된 것으로서 이것은 期間原價概念과 製品原價概念의 混亂에 基因된다.

期間原價概念

期間原價(period cost)는 一名 操業原價(capacity cost)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의 概念에 대해서는 많은 學者의 解釋이 있으나 이 중에서 그 本質的 問題를 取扱하고 있는 것이 「홍그린」 및 「소터」이다. 그들은 期間原價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直接原價計算의 支持者는 固定製造原價는 生産能力을 準備하는 原價라고 主張한다. 이 生産能力이 完全히 利用되던 利用되지 않던 간에 固定費의 消費에 관한 한 普通은 關聯성이 없다……時計가 雑각雜각 함에 따라 固定費는 死滅하고 次期 以後의 生産을 繼續하기 위해서 새로운 固定費의 集團이 補充되지 않아선 안된다.』⁽³⁵⁾

期間原價概念은 本質的으로 生産活動의 如何와는 關係없이 時間의 經過에 따라 死滅하는 原價를 意味한다. 이와 같은 原價는 營業活動의 便益을 위하여 一定期間 동안 發生한다. 그러나 그 便益은 그 期間동안 實際의 營業活動의 程度에 따라 變動하는 것은 아니며 如何한 경우에도 期末에 가서는 消費되고 만다. 이같이 解釋되는 期間原價概念은 『生産에 의 原價의 凝着』이란 傳統的會計觀과 相衝한다. 즉 「케이톤」 및 「리틀톤」은 모든 原價는 販賣된 財貨 또는 用役에 凝集되며 期間區分은 收益 費用을 對應시키는 過程에서 便宜上 나타난 代替物이라고 한다.⁽³⁶⁾

그러나 直接原價計算論者 중에서도 期間區分에 대한 傳統的 觀點에서 特別한 關心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린」(D. Green)이 있다. 그는 期間區分과 製品에 대하여 銳利하게 問題點을 파헤치고 있다 즉 그는 製品 또는 時間的間隔중 어느 것을 擇할 것이냐 하는 命題를 提示하고 製品을 擇하는 理由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大部分 會計士의 業務는 時間的間隔과 關聯을 갖고 있다. 事實上 損益計算書는 期間區分(time period)을 알아야만 意味있는 것이 된다』고 하고 繼續하여 그것은 企業의 生命을 比較的 短期間으로 區分하는 過程이며 그 點이 會計士와 史學者와 區別되는 點이라고 한다.⁽³⁷⁾ 이와 같은 「그린」의 製品 期間區分問題는 直接原價計算論爭을 明確하게 認識하는데 큰 貢獻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5) C. T. Horngren and G. H. Sorter, *op. cit.*, p. 88.

(36) W. A. Paton and A. 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Urbana,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49, p. 15.

(37) David Green, Jr., "A Moral to the Direct-Costing Controversy?" *The Journal of Business*, Vol. 33, July 1960, p. 221.

製品原價概念

上記한 期間原價概念에 對抗하여 製品原價概念을 積極 主張한 學者로서는 前述한 바 있는 「페스」와 「페라라」가 있다. 그들은 製造費用은 製品原價를 構成하며 이것을 期間原價로 取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主張한다. 또한 「페라라」는 그의 單獨論文에서 모든 固定生産費는 產出單位法(unit-of-output method)에 의하여 償却하여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는데⁽³⁸⁾ 이것은 固定製造費가 變動原價임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一般적으로 認定된 會計實務에서 期間을 區分하여 그 期間에 따라 償却할 것을 認定하고 있다. 이것은 會計實務上의 便宜性에서 認定되고 있는 것이며 이의 必要性은 未來 經營活動의 不確實性에서 연유한 것이다. 前述한 바 있는 「페스」 및 「페라라」의 論文에서도 收益認識에 있어서 附加價値接近法(value-added approach)을 支持하고 있으나 收益認識은 販賣時點까지 遲延시킬 것을 認定하고 있다. 이것은 그 時點에 가서만이 測定の 客觀性을 保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收益認識이 遲延되면 收益의 稼得에 關聯된 모든 原價(固定費 및 變動費)도 在庫資産의 形態로서 移延되어야 한다.⁽³⁹⁾

그 밖에도 「프렝겐」 및 「소터」의 期間原價概念을 批判하여 發表한 「프렝겐」(J. M. Fremgen)의 論文에서는 製品原價概念을 支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理論上 眞正한 期間原價란 있을 수 없다. 非製造原價를 包含한 企業에서 發生한 모든 原價는 製品原價이다. 그 理由는 企業의 製品은 단지 製造部門에서 製造해 낸 物理的인 財貨가 아니고 經濟的効用의 集合體로서 時間的効用 場所的効用 및 形成的効用을 包含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理論上은 販賣費와 管理費도 다른 製造費와 마찬가지로 製品原價이다. 製品은 顧客이 要求하는 形態로서 場所에서 또 時點에서 提供함으로써 처음으로 完全하게 된다. 그러므로 製品의 完成은 製造過程과 같은 程度로 本質적으로 販賣過程도 包含하는 것이다.』⁽⁴⁰⁾

이와 같은 製品原價概念에 立脚하여 考察하면 固定費는 이것이 收益을 產出한다는 理由로서 期間에 賦課되지 않고 製品에 賦課된다. 期間區分이란 營業活動을 遂行하고 利益測定을 하기 위해 便宜적으로 設定한 附隨物이다. 따라서 固定費를 包含한 모든 生産原價는 製品이 販賣된 期間의 收益에 對應시켜야 한다.

(38) W. L. Ferrara, "Idle Capacity as a Loss-Factor Fic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 35, July 1960, p. 490.

(39) P. F. Fess and W. L. Ferrara, *op. cit.*, p. 600.

(40) James M. Fremgen, "Variable Costing for External Reporting—A Reconsidera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 37, 1962, p. 78.

(2) 資産測定の 問題點

在庫資産價値를 構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基本的인 問題는 資産의 概念에서 찾을 수 있다. 「美國會計學會의 會計概念 및 基準委員會」(Committee on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of the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에서 發表한 資産概念은 用役潛在力에서 求하고 資産을 『期待되는 營業活動을 위해서 有用하고 便益을 提供하는 用役潛在力の 總計』(aggregates of service-potentials available for or beneficial to expected operations)⁽⁴¹⁾라고 하고 있으며 最近의 「스프루스」 및 「무니쯔」(Robert T. Sprouce & Maurice Moonitz)는 『資産은 期待되는 未來의 經濟的効益을 意味한다』(assets represent expected future economic benefits)⁽⁴²⁾고 한다. 資産에 對한 이와 같은 概念에 對해서는 根本的으로 一致된 見解를 갖고 있으며 資産의 「用役潛在力說」 또는 「未來効益說」은 오늘날 直接原價計算을 둘러싼 論爭에서 重要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⁴³⁾

用役潛在力の 原價回避概念

用役潛在力에 대한 解釋은 오늘날 一致된 見解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直接原價計算 支持者들은 大部分 이 用役潛在力을 『資産은 未來에 原價發生의 必要性을 回避하는 程度까지 用役潛在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 「웨트나이트」(Robert B. Wetnight)는 直接原價計算이 全部原價計算에 비하여 未來効益을 「테스트」하는데 보다 適合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現在 論議되고 있는 두 原價計算方法에 이 未來効益을 「테스트」해 보면 直接原價計算이 가장 그 條件에 適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未來効益은 變動原價에서 나타난다. 이와같은 原價는 未來期間에 發生될 必要가 없으나 固定費의 경우는 未來効益이 存在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營業活動의 程度如何를 불문하고 未來期間에도 發生될 것이기 때문이다.』⁽⁴⁴⁾

「原價回避」(cost obviation)란 用語는 「그린」이 最初로 使用한 것으로서 그는 이 概念을 現金이나 未收金과 같은 財務的 請求權을 除外한 모든 資産을 測定하기 위한 基準으로서 使用하였다. 「그린」은 資産의 測定은 過去에 原價發生의 結果 未來에 回避되는 原價도 測定할 것을 提示하고 過去에 發生된 固定製造原價는 未來에 同一한 原價의

(41)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Preceding Statements and Supplements*, (Columbus: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57), p. 4.

(42) Robert T. Sprouce and Maurice Moonitz,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3 (New York: AICPA, 1962), p. 20.

(43) J. M. Fremgen, "The Direct Costing Controversy: An Identification of Issues," *The Accounting Review*, Vol. 39, January 1964, p. 48.

(44) R. B. Wetnight, "Direct Costing Passes the Future Benefit Test," *N.A.A. Bulletin*, Vol. 39, August 1958, p. 84.

再發生을 回避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⁴⁵⁾

原價回避觀에 대해서는 이와같이 여러가지 主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前述한 「홍그렌」 및 「소터」兩教授의 主張은 가장 廣範圍하게 論議되고 있는 것으로서 直接原價計算을 支持한 그들이 提示한 原價回避觀에서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우리는 原價가 萬一 그의 發生이 正常的인 業務過程에서 未來原價의 回避(future cost avoidance)라고 하는 結果가 된다면 傳統的會計의 意味에서 用役潛在力을 갖는다고 提言한다. 換言하면 資產(未消費原價)은 未來에 再發生을 必要로 하지 않는 原價를 보통 意味한다. 例를 들어 繼續企業이라고 하는 假定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關聯性이 없는 原價는 資產이 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表現하면 어떤 原價의 存在로 인하여 企業 未來의 總費用이 減少된다고 하면 그 原價는 未來에 對해서 關聯性을 가져 資產이 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關聯性을 갖지 못하고 消費된다.』⁽⁴⁶⁾

未來原價回避觀에 대한 「홍그렌」 및 「소터」의 立場을 보다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在庫品을 위한 一定期間동안 財貨의 生産은 次期에 同在庫品을 生産하는데 變動費를 다시 投入하지 않고서도 收益의 實現을 可能하게 하지만 一期間에 完成된 在庫品이 存在한다고 해서 次期の 固定費發生을 防止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變動費는 未來와 關聯을 갖고 있지만 固定費는 未來와 關聯을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用役潛在力の 收益產出概念

上述한 用役潛在力の 原價回避의 解釋은 比較的 最近에 主張된 理論이다. 原價回避論이 出現하기 이전의 一般的 用役潛在力の 解釋은 未來의 收益產出에 寄與하는데 必要한 能力을 意味하는 것으로 보았다.

收益產出概念에 立脚한 用役潛在力の 解釋은 原價의 未來 收益의 實現에 寄與하느냐의 與否에 따라 未消費原價와 消費原價로 區分된다. 『만약 原價가 將來 收益의 產出에 寄與하기 위해서는 原價의 全部 또는 그중의 一部는 移延되어 純利益決定에서 將來의 收益과 對應시켜야만 된다.』 따라서 『變動費와 固定費에는 어떤 區別도 없는 것』이며 다만 『收益產出能力(revenue producing potential)이 原價의 消費部分과 未消費部分과를 區別하는 「테스트」가 되어야 한다.』⁽⁴⁷⁾

(45) David Green., Jr., *op. cit.*, p. 223.

(46) C. T. Horngren and G. H. Sorter, *op. cit.*, p. 86.

(47) J. M. Fremgen, "Variable Costing for External Reporting—A Reconsidera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 37, January 1962, p. 76.

이 理論에서는 將來 販賣되어 收益을 稼得할 수 있는 製品生産에 必要한 原價는 在庫品에도 移延되어 販賣期間의 利益決定過程에서 收益과 對應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考察한 用役潛在力の 原價回避說은 固定費를 期間原價로 取扱하여야 한다는 理論의 根據에서 出發한 것이며 이에 對하여 用役潛在力の 收益產出力說에서는 固定費의 製品原價로서의 妥當性을 固守하는데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窮極的인 直接原價計算과 全部原價計算의 論爭은 固定費의 處理問題를 둘러싼 期間原價 對 製品原價의 對立에 歸結시킬 수 있다. 그러나 現段階에서는 이 두 概念의 對立을 解決할 最高의 會計原則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두 原價計算方法 중에서 어떤 것을 外部報告用으로 選擇 使用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결국 直接原價計算이 갖는 効用性에 따라 左右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⁴⁸⁾

V. 結 言

財務的報告書는 본래 意思疏通의 媒介機能을 가지고 있다. 企業의 經營活動은 이 財務報告書를 媒體로 하여 企業內部的 經營者와 企業外部的 株主 債權者 및 其他의 利害關係者에게 傳達된다.

直接原價計算에 立脚하여 作成된 財務報告書는 一般的으로 企業經營의 管理活動을 위하여 有用한 管理用具로서 認定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企業의 內部報告書에서와 마찬가지로 外部報告書로서 企業外部的 利害關係者에게도 有用한 것인가?

이에 對해서 直接原價計算에 依한 財務報告書가 企業의 外部者에게도 有用하다고 主張하는 사람은 別로 없다. 다만 直接原價計算의 積極的인 主眼者인 「그린」과 「홍그렌」 및 「소터」는 이것이 經營의 管理用具로서 有用할 뿐만 아니라 外部報告目的으로서도 從來의 全部原價計算에 優先하여 그의 妥當性을 가지고 있다고 主張한다.

損益計算書에 나타난 直接原價計算과 全部原價計算의 顯著한 差異點은 直接原價計算에 依하여 作成된 損益計算書가 (1) 原價와 生産量과 直接的인 關聯을 갖고 있으며 (2) 純利益이 生産量을 除外한 販賣量에 依하여 決定된다는데 있다. 直接原價計算이 갖는 損益計算書上的 이와같은 特徵은 우선 (1)의 原價와 生産量과의 關係에서 考察하면 이것은 經營者로 하여금 原價와 生産量을 計劃統制할 수 있는 有用한 管理用具로서의 効益을 提供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未來指向的인 管理用具는 外部報告書로서는 果然 얼마나 有用하게

(48)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의 1953年 한 研究調査에 의하면 損益測定에 使用할 原價計算方法은 各會社가 獨自的으로 決定한 効用性에 立脚하여 選定되어야 한다고 한다. ("Direct Costing," N.A.C.A. Bulletin, Vol. 34, April 1953, p. 1119 參照).

利用될 수 있을 것인가? 經營과 資本이 完全히 分離된 오늘날의 經濟社會에서 株主는 配當金を 中心으로 한 收益性에 債權者는 債權을 中心으로 한 安全性에 모든 注意를 集中하게 되고 企業의 內部管理問題에 대해서는 별다른 神經을 쓰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原價와 生産量의 關係가 갖는 經營의意味에 대해서는 거의 無關心한 狀態로 되는 것이 常例라 할 수 있다.

直接原價計算이 갖는 損益計算書上의 特徵 (2)는 生産량이 純損益에 影響을 미칠 수 있으나 없느냐의 問題로서 直接原價計算에서는 企業의 純損益을 決定하는 것은 生産량이 아니라 販賣量이라고 主張한다. 따라서 이 問題는 論理的으로 生産량이 純損益을 左右할 수 있는 妥當性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本質的 問題로서 이것은 結局 앞에서 본 期間原價製品原價의 論爭으로 歸着하는 問題이다.

直接原價計算이 一般的인 承認을 받아 社會의 한 制度로서 認定을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것은 결국 直接原價計算에 의한 財務報告書가 企業外部의 利害關係者가 有用한 것이라고 認定하느냐의 與否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繼續하여 兩原價計算을 比較하여 어느 것이 相對的으로 外部報告書로서 効用性을 갖느냐 하는 것을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直接原價計算에 대한 論議가 시작된지 4分の 1世紀를 經過한 오늘날의 直接原價計算은 漸次的으로 內部報告目的 만이 아니라 外部報告目的으로서도 하나의 在庫資產測定技術로서 承認을 받고 있는 段階에 있다. 萬一 앞으로 直接原價計算이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로서 承認을 받게 되면 이것은 全部原價計算에서 代替되어 使用되든가 또는 다 같이 認定된 會計制度로서 共存하게 될 것이다. 兩方法이 同時에 採擇되는 경우에는 두 原價計算의 概念上的 差異가 너무나 懸隔하기 때문에 이것이 財務報告書를 利用하는 各種의 利害關係者에게 많은 混亂을 惹起시킬 것이다. 이 根本的으로 相異한 財務報告書가 「커뮤니케이션」의 媒體로서 다 같이 正當한 것으로써 意思疏通機能을 効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現段階에서는 豫測하기 困難하다.

끝으로 附言하고 싶은 것은 在庫資產의 評價問題이다. 近代會計理論에서는 在庫資產을 純實現可能價值(net realizable value)로 評價할 것을 提言하고 있다.⁽⁴⁹⁾ 오늘날 採擇되고 있는 歷史的 原價에 依存한 評價方法에 依存하지 않고 純實現可能價值로 評價하는 段階가 만일 到達하게 된다면 그 때에는 現在 論議되고 있는 直接原價計算이나 全部原價計算은 다 같이 相互 無關心한 狀態下에서 未解決된 채 破滅의 共同運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49) R. T. Spruce and M. Moonitz, *op. cit.*, pp. 27—30.

(50) "Comments on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The Journal of Accountancy*, Vol. 115, April 1963, pp. 36—48.

까지의 會計原則史의 發展過程을 더듬어 보고 또 純實現可能價値로 在庫資産을 評價한다고 하는데에 대한 實務界의 批判⁽⁵⁰⁾에 비추어 볼 때 歷史的原價에 立脚한 近代會計學의 基本的機構가 短時日內에 그와 같은 큰 變革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도 直接原價計算에 대한 論爭은 繼續될 것이며 이는 또한 우리들 會計學徒의 많은 注意를 끌 것이다. 그러나 이 問題가 解決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解答을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筆者 {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
{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
{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專任講師 }

Direct Costing Controversy

*Jhong-Ho Lee**

Introduction

Not less than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systematic study of cost accounting had begun. It is generally conceded that accounting originated with the rise of the factory system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Around the turn of the century, most product costs came to include factory overhead to product as well as prime costs. In this early efforts to charge factory overhead to product, historical costs were generally used, based on actual materials and labor as well as actual overhead costs. However this method of costing couldn't meet the increasing problems of cost estimating and compatible pricing. Accordingly predetermined overhead rates had finally gained acceptance by 1910.

Next development in costing was standard costing which emerged during 1920's. Standard costing devices started from the critical stand of past retrospective or post-mortem cost accounting.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creasing complexity of modern industrial system, cyclic and seasonal business field really needed the predetermined cost accounting. During 1930 to 1950,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managerial uses of costing, cost accounting came to devote to business as management tools i.e., budgeting, break-even analysis, ratio analysis, profit planning and distribution cost analysis.

Looking back to the development of cost accounting, it seems to be a natural step in the evolution of overhead costing. Again early in 1950's direct costing emerged as a new approach to overhead costing. The fundamental ideas of direct costing were first publicized in 1936 by Jonathan H. Harris in an article

* The author is instructor of accounting,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itled “What Did We Earn Last Month?”

Under this method fixed factory overhead is not assigned to product. Direct costing differs from conventional costing, sometimes called absorption costing, because fixed factory overhead is treated as a period (charged against revenue immediately) rather than as a product cost (assigned to units produced).

Direct Costing versus Absorption Costing

The difference between direct costing (“variable costing” is more appropriate) and traditional absorption costing lies in the elements of variable overhead cost that are to be included in the cost of goods sold, and in the final inventories. So the direct costing should be defined as a segregation of manufacturing costs between those which are fixed and those which vary directly with volume. The costs of the product are composed of only variable costs and fixed portion of the costs are directly charged against to the revenue of current period. According to this principle of direct costing, this method of costing is different from absorption costing in three points;

1. Classification of costs,
2. Order of charging costs to revenues, and
3. Valuing the inventories.

The motivation of direct costing stems from the ever increasing mechanization in American industry. With the increase of the scale of business, overhead becomes ever larger element of cost since a substantial portion of this elements largely non-variable in nature, seasonal and cyclic variations in production and sales tend to build up in the inventory, thus reducing the amount of the current period’s costs until such time as the inventory is sold. During this period of heavy production, conventional absorption costing may show profits to be high, even though sales are low. During the reverse cycle, the opposite will usually be true.

As mentioned above, under direct costing, inventories are to be valued at direct or variable costs, while fixed cost would be charged directly to expense in the current period. The basic difference in profit and loss statement between

absorption and direct costing is that, in case of absorption costing fixed costs are included in inventory, and direct costing, which includes only direct or variable costs.

Undoubtedly this method of direct costing is generally conceived as an accepted technique of internal reporting to management, especially for the pricing policy. However in the areas of external reports to stockholders, creditors, and other outside interest parties, the controversy is in full bloom. Nowadays the main controversy point is centered to the external reportings only.

Direct Costing Controversy

Advocates of direct costing maintain the fixed portion of factory as period costs. Opponents maintain that inventories should carry a fixed cost component because both variable and fixed costs are necessary to produce goods; both these costs should be inventoriable regardless of the differences in their behavior patterns.

Early arguments of direct costing are focussed on the problems of its managerial utility as well as that of its usefulness for external reporting. However the advocates as well as opponents failed to attack the basic premises underlying the direct and absorption costing techniques. Recently these basic premises have been exposed and subjected to careful scrutiny.

One of the most serious arguments over the direct costing can be seen between Horngren and Sorter's advocacy of direct costing and Fess and Ferrara's opposition to it.

Cost obviated notion proposed by R. P. Marple was developed further in the series of articles by C. T. Horngren and G. H. Sorter. Especially "Direct Costing for External Reporting" published in 1961 was proposed in an attempt to clear up the possibility of some misinterpretation of basic thoughts and ideas underlying accounting principles. It seems that the basic assumption underlying the Horngren and Sorter thesis is that income is earned at the point of sale, and from which their basic assumption flows the concept of asset which

is the central feature of the thesis. According to their thesis an asset represents costs with service potential and service potential is the costs ability to have a favorable effect on expected future costs or revenues. In other words, “a cost has service potential, in the traditional accounting sense, if its incurrence now will result in future cost avoidance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The ultimate conclusion of the argument is that, generally speaking, the fixed costs of production are costs without service potential since their incurrence in one period has no effect on whether they will be incurred in the future. Variable production costs on the other hand have service potential since their incurrence today will overcome the need for their incurrence in the future. The essence of argument seems to be contained in the idea that the only costs which will be reduced in the future because they are incurred today are variable costs since the fixed costs will remain the same with or without the production of goods which are included in the inventory. In other words, the value of the inventory is determined only by the extra costs occasioned by producing the inventory. Furthermore, these costs occasioned by the production of inventory are costs which will not have to be incurred in the future since the production of inventory reduces the future need for production and hence the future incurrence of variable production costs.

As the alternative to the Horngren and Sorter thesis, Fess and Ferrara state that income is earned (value is added) at each and every stage in the total proces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that the value of an inventory is i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that the value of an inventory is its net realizable value. Net realizable value represents the utilities acquired through production, sale, and delivery. With this alternative, one considers the costs of producing the net realizable value as used-up service potential; that is, these costs (fixed, variable or otherwise) have no service potential left to them since they have been used up in the production of revenues. The asset inventory has service potential but not in the sense of cost avoidability. The service potential inherent in the inventory valued at net realizable value is that

inventory's ability to be converted into cash which can be used again in the acquisition of those resource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income. If we accept this idea,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this "value added" concept of income measurement, in most instances and for this reason, it seems appropriate to delay the recognition of earned income until it is more objectively determinable at the point of sale. Here they emphasized that the point of sale is not regarded as the point at which income is earned, it is regarded as the point at which income already earned is recognized as earned.

This distinction is fundamenta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between Horngren-Sorter thesis and Fess-Ferrara thesis. The Fess-Ferrara thesis recognizes the point of sale as important but only in terms of being able to ascertain more objectively the amount of income which has been earned step by step through the total proces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 conclusion of the Fess-Ferrara thesis is that if the recognition of previously earned income is delayed, all costs used up or associated with that income must be delayed. They assert that there is no alternative to such a conclusion if one is truly interested in the calculation of income even though the recognition of that income is delayed in the hope of making it more objectively determinable. As already be seen, the costs to be delayed include all costs used up in producing the delayed income whether they are fixed or variable. Furthermore, even though these delayed costs are considered inventory and thus an asset, they have not service potential, for their service potential has already been used up in the production of income, the recognition of which has been delayed.

Fundamental Problem of Direct Costing

According to the financial statements approach, summarizing the above two theses and other prevailing arguments over direct costing, one can see that the fundamental point of argument is focussed around the categories of income measurement and assets measurement as well.

In the income measurement, probably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oint of controversies between direct and full costing is the question of whether fixed

manufacturing costs are costs of product produced or of the period in which they are incurred. Traditionally accounting reports have treated them substantially as product costs, direct costing would treat them wholly as period costs. So the period cost concept and product cost concep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easurement of income.

The period cost concept, in its essence, states that there are certain costs which, by their nature, expire with the passage of time, regardless of production activity. They are incurred for the benefit of operations during a given period of time. The benefit is unchanged by the actual level of operations, if any, during that period, and it expires at the end of the period in any event.

The product cost concept states that all manufacturing costs are cost of the product and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anufacturing cost of the period. According to this concept, logically, all so called fixed production cost should be amortized by a unit-of-output method, which would make them variable costs. Time period amortization is acceptable only as a practical convenience, the need for which derives from uncertainty as to future operations. Express another way, a value added approach to revenue recognition accept the deferral of revenue recognition to the point of sale on the grounds that measurement is more objective at that point.

Another important core of the direct costing is assets measurement. As to what constitutes the value of an inventory, the concept of an asse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ntroversy over direct costing. Nowadays assets are expounded “aggregates of service-potentials available for or beneficial to expected operations” or “expected future economic benefit.” Then what is the nature of service potential or future benefit?

There are generally two kinds of approaches to the nature of service potential or future benefit, the one is cost obviation concept of service potential and the other is that of revenue production concept.

According to the cost obviation concept, assets have service potential to the extent that they avert the necessity for incurring costs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assets are the costs that will be obviated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cost incurrence in the past. However, the past incurrence of fixed production costs does not avoid the reincurred of the same costs in the future. Accordingly, inventories should be included only variable costs.

In case of revenue production concept of service potential, the service potential of an asset means that its capacity to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revenue in the future. This revenue production approach distinguishes between unexpired and expired costs respectively, according to whether their incurrence will or will not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revenue in the future. Under this theory, any costs essential to the production of a product that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sold and, thus, generate revenue is a cost of obtaining such revenue and should be deferred in inventory so that it may be matched with the revenue in the determination of income for the period of sale.

Conclusion

Recently direct costing has been generally conceded to be useful in reports to management. However whether it is useful to stockholders, creditors, and other outside interest parties is not concluded yet. Accordingly the argument of direct costing is focussed in the area of external reports only.

Historically and practically, financial reports are evolved from the practical usefulness. Therefore the standards of financial reporting should be designed to further this objective of usefulness. When the utility of direct costing is conceded as external reports, the time of general usage of direct costing as external reports will come. But as for now it is hard and no time to anticipate.